

03

March 2026  
vol. 299

#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Trend Now



Lucky Spring  
Between the Finger Ring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CELINE**  
PARIS

### In The Greatest Strength Lies Softness\*

레이싱 요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J12는 한계를 넘어선 디자인으로 지평을 확장합니다. 스틸보다 7배 더 견고한 세라믹은 시간이 지나도 마모되지 않습니다. 그 공극의 강인함은 부드러움에서 시작됩니다. 다이아몬드 파우더로 폴리싱된 세라믹은 실크처럼 매끄러운 촉감을 선사하고, 칼리버 12.1 매뉴팩처 무브먼트는 샤넬 워치메이킹의 탁월한 전문성을 구현합니다. 손목에 닿는 순간, 착용하는 이와 하나가 되는 견고한 부드러움.

# J12



# Contents

- 08\_SELECTION 새로운 계절의 시작, 산뜻한 무드를 더해줄 재킷과 스커트, 감각적인 백과 주얼리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완성하는 스프링 시즌 룩.
- 11\_WRIST ALERT 아이코닉 라인을 한층 견고하게 다진 뉴 뱅글 & 브레이슬릿
- 12\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4\_의미 있는 발견이 시작되는 캔버스 요즈음 글로벌 호텔 생태계에서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불려가는 브랜드를 꼽자면 카펠라(Capella)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브랜드에 대한 궁금증이 쌓여가던 차에 지난해 4월 문을 연 카펠라 타이베이(Capella Taipei)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 18\_AWAKENING SPRING 나비가 날아들고 꽃과 식물이 만개하며 봄의 생동감이 피어오른다. 반클리프 아펠 럭키 스프링 컬렉션의 송고한 아름다움이 머무는 순간.
- 22\_HERITAGE IN STYLE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행보를 통해 주얼리를 넘어 아트 피스에 가까운 하이 주얼리를 선보여온 부쉐른의 하이 주얼리 '이스투아 드 스타일'(histoire de Style) 컬렉션. 'Nom : Boucheron Prénom : Frédéric'.
- 24\_THE TIME OF WONDERS 2026년 2월, 스위스의 안데르마트에서 열린 AP 소셜 클럽(AP Social Club)에서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의 새로운 마스터피스를 소개했다.



34



14



반클리프 아펠의 아이코닉한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메종이 사랑하는 계절, 봄의 시작을 알리며 자연의 태동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올해 역시 새로운 스펀과 모티브의 조합으로 완성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2026년 새봄을 찬양한다. 커버 사진 속 제품은 럭키 스프링 버터플라이 비드윈 더 핑거 링. 문의 1877-4128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08



26

- 26\_LUMINOUS FLOW 빛의 흐름에 따라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다이아몬드 베젤 워치 6.
- 27\_VENICE SPIRIT 장인 정신과 혁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유성을 추구하는 보테가 베네타에서 2026 여름 캠페인을 공개했다.
- 28\_MODERN TIMES 가벼운 착용감과 뛰어난 활동성을 겸비한 러버와 패브릭 스트랩은 남성 워치로서 예상 밖의 트렌디한 맛을 선사한다.
- 29\_A DYNAMIC DREAMER 뜨거운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위치계의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워블로가 힘찬 시작을 일린다.
- 30\_BACK IN CLASSIC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켜오거나, 리뉴얼을 거쳐 귀환하거나, 브랜드마다 클래식 백을 풀어내는 방식은 다양하다.
- 31\_AN ETERNAL BRILLIANCE 하이엔드 워치와 주얼리 메이커로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쇼파드가 특별한 전시 (다이아몬드의 시간(L'heure du Diamant))을 개최했다.
- 32\_2026 S/S TREND REPORT 가장 대인 균형, 유행 대신 활용도에 주목했다. S/S 컬렉션을 통해 꼽아본 패션 하이라이트 8.
- 34\_NEW IT GIRL 봄으로 완성하는 파워풀한 뉴 레이디 룩.
- 42\_GET THE LIST 봄을 연상시키는 패턴과 구조적 디자인, 그리고 정제된 실루엣. 요란하지 않게 새 계절을 만끽하는 방법.
- 44\_SECRET SCENTS 서로를 감싸 안은 듯, 포근하고 따뜻한 향.
- 45\_SOFTLY AFTER 피부 관리를 넘어 감각적인 리추얼이 되어줄 렉스 보디 케어.
- 46\_EDITOR'S PICK 편집부 에디터들이 엄선한 이달의 뷰티 리스트.



COLLECTION QUATRE

# BOUCHERON

PARIS DEPUIS 1858

#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민 stylechosun.khy@gmail.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보민 boming0129@gmail.com 디자인 나나바나스튜디오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투버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화사한 핑크 컬러의 울 블렌드 텍스처드 니트 재킷 92만원대 **랑방 컬렉션**.

네크리어나 벨트 등 다양한 아이템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참 베랑곳 59만원대 **셀린느**.



체크 패턴에 시그니처 로고 패치를 더한 바킷 햇 89만원 **몽클레르**.



18K 핑크 골드 소재에 핑크 퀴츠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세팅 보렘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부쉐론**.

상세한 매듭 모티브에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주드 라장 펜던트 1천1백60만원 **쇼메**.

- 랑방 컬렉션 1800-5700
- 셀린느 1577-8841
- 부쉐론 02-3467-8334
- 쇼메 02-1670-1180 **몽클레르** 0030-8321-0794 **투미** 02-539-8160 **페라가모** 080-001-1927 **티파니** 02-6250-8620 **알리아** 02-6905-3413 **포멜라토** 0030-8321-0441 **에트로** 02-3446-1321 **글리슈테 오리지널** 02-310-1749 **버버리** 080-700-8800 **프라다** 02-6250-8620

# for her Selection

새로운 계절의 시작, 산뜻한 무드를 더해줄 재킷과 스커트부터 감각적인 백과 주얼리까지,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완성하는 스프링 시즌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가죽 케이스에 무선 이어폰을 보관할 수 있는 이어버드 참 키링 16만원 **투미**.

플라워 패턴을 프린트한 실크 스카프 69만원 **페라가모**.



중앙에 옐로 다이아몬드를 4개의 테이퍼드 프롱으로 세팅한 티파니 노보 옐로 다이아몬드 웨딩 링 가격 미정 **티파니**.



볼드한 핑크 프레임이 돋보이는 선글라스 가격 미정 **알리아**.



하우스의 시그니처 체크를 담은 미니 볼트 가격 미정 **버버리**.



스트랩을 탈착할 수 있으며 양면 스트레드 가공 디테일이 특징인 미니 벨라 백 4백만원대 **에트로**.

다이아몬드 세팅한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의 레이디 세레나에 3천만원대 **글리슈테 오리지널**.



부드러운 핑크 레더로 완성한 컬랩스 스니커즈 가격 미정 **프라다**.

COLLECTION QUATRE



# BOUCHERON

PARIS DEPUIS 1858

엘로 골드 소재의 벨 에포크 릴 네크리스 3백49만원 **다미아니**.

크루아상 모티브의 아미 드 피흐 크루아상 키 링 23만원대 **아미**.

가벼운 코튼 소재의 데님 사파리 재킷 2백70만원대, 브라운 컬러의 패턴 셔츠 가격 미정 **발렌티노**.

35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베젤과 리그, 다이얼을 장식한 클래식 투르비용 3358 2억5천만원대 **브레게**.

18K 로즈 골드에 총 0.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코니카 미들 라지 링 6백만원 **포멜라토**.

화이트 골드-슈타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빅 모음을 상징하는 비드 쇼메 브로치 가격 미정 **쇼메**.

앞면에 후크 & 비 클로저를 부착한 그레고리 핸드데일링을 울 트라우저 1백25만원대 **발프 로렌 퍼블 라벨**.

중량의 다이아몬드와 블랙 PVD 장식인 포인트인 콰트로 블랙 에디션 밴글 8백만원대 **부쉐론**.

카프 스킨 소재의 켈리 패스티벌 백 참 2백80만원대 **에르메스**.

베이지, 그린, 바이올렛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로디 레이스업 부츠 1백55만원 **다울 맨**.

반투명 블랙 컬러 렌즈에 블랙 프레임으로 완성한 신크루스 가격 미정 **프라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하드웨어 링 9백80만원대 **티파니**.

브레게 02-6905-3571 **다미아니** 02-515-1924 **아미** 02-6956-8782 **발렌티노** 02-2015-4655 **부쉐론** 02-3467-8334 **쇼메** 02-1670-1180 **발프 로렌 퍼블 라벨** 02-3438-6235 **포멜라토** 02-3143-9486 **다울 맨** 02-3480-0104 **에르메스** 02-542-6622 **셀린느** 1577-8841 **티파니** 02-6250-8620 **프라다** 02-6250-8620 **루이 비통** 02-3432-1854

아이코닉한 하우스의 패턴으로 완성한 라발리에르 실크 트월 33만원 **셀린느**.

화사한 엘로 컬러의 스피디 P9 반들리에 30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에디터 **신영민**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 Wrist Alert

최근 출시되어 브랜드의 아이코닉 라인을 한층 견고하게 다진 뉴 밴글 & 브레이슬릿.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부쉐론 콰트로 블랙 다이아몬드 스몰 밴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 블랙 PVD 등 여러 밴드를 골목 조립(chimney assembly) 방식으로 감입이 더해 강한 결속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 가격 미정. 문의 080-822-0250 **다울 파인주얼리 로즈 드 방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다양한 크기의 별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그라프 로렌스 시그니처 컬렉션 트리플 다이아몬드 밴글** 하우스 최초로 성별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한 모델. 구조적이면서 모던한 오픈 밴글 디자인으로 엘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수놓았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2150-2320 **레포시 세르티 수르 비드 브레이슬릿** 브랜드 고유인 플로팅 스톤 기법으로 패어 컷 다이아몬드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426 **티파니 노트 밴글** 불드한 로즈 골드 라인에 더한, 총 0.05캐럿의 다이아몬드 리본 매듭이 결속을 상징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1670-1837 **키린 울루 브띠 펄 브레이슬릿**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조롱박 세이프에 아코야 진주 하나를 더해 운명과 순수함, 변치 않는 헌신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2백51만원. 문의 02-6905-3453 **피아제 데코 펠리스 브레이슬릿** 군더더기 없는 라운드 세이프의 로즈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데일리 룩에 안성맞춤이다. 3백61만원. 문의 1877-4275 **에디터 김하얀**

어시스턴트 **김지현**

# INSIGHT



### Luck in Spring

반클리프 아펠의 럭키스프링은 메종이 오랜 시간 소중히 여겨온 자연과 행운의 요소를 주얼리에 담아낸 컬렉션으로 모든 디테일은 장인의 손길과 기술력으로 정교하게 완성했다. 오픈 링, 클립,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등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도 럭키스프링 브레이슬릿은 5개의 참 디테일로 풍성한 존재감을 발한다. 자개로 5장의 매화꽃잎을, 오픈스 와 커널리언으로 무당벌레를 세밀하게 구현했다. 장인의 손으로 무당벌레의 도트 패턴까지 하나하나 정밀하게 세팅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또 크기가 다른 자개 소재 은방울꽃 두 송이와 정교한 세공 기술로 입맥을 살린 인사귀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봄의 활기와 생동감을 아낌없이 전한다. 문의 1877-4128

### Beyond Black & White

오메가에서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문위치를 선보인다. 상징적인 스텝 다이얼을 기반으로 더욱 클래식한 구조로 제작했으며, 상단 플레이트는 폴리싱 처리한 블랙 컬러로 바나시 및 래커 마감 적용해 깊이 있는 광택을 구현했다. 로듐 도금 프레임에 더한 서브 다이얼은 화이트 컬러로 마무리해 아름다운 대비를 보여준다. 지름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과 18K 문사인™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브레이슬릿은 폴리스드 및 브러시드 마감 처리한 문위치 특유의 디자인으로, 오메가의 특허 기술인 컴포트 릴리즈 조절 시스템을 적용해 착용감을 높였다. 문의 02-6905-3301



### Flowery Heritage

런던을 대표하는 럭셔리 백화점 리버티가 전개하는 리버티 뷰티가 2월 27일,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에 첫 매장을 오픈한다. 리버티 뷰티는 6만여 개에 달하는 리버티 패턴 아카이브에서 영감받아 향 자체보다 제품의 예술성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새로운 차원의 니치 프래이그런스 브랜드다. 향수뿐만 아니라 홈 프래이그런스, 헤어 & 보디 등의 제품군을 갖추었으며, 독특한 향만큼 패키지 또한 리버티의 유서 깊은 아트워크를 담아 한 점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듯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문의 080-363-5454



### Step by Step

새 계절, 새 마음으로 단 하나의 신발을 선택해야 한다면, 셀린느 오라(Aura) 로퍼를 추천한다. 둥근 앞코와 발등을 안정적으로 감싸는 미니멀한 디자인, 앙증맞은 트리온프 로고의 조합은 캐주얼부터 포멀까지 다양한 룩에 어울린다. 특히 뒤축의 두 절개 라인 덕분에 신발을 살짝 구겨 신어도 주름 걱정 없이 플로퍼나 슬라이드 슈즈처럼 활용할 수 있다. 따뜻한 봄, 신뜻한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길. 1백45만원. 문의 1577-8841



### SHADES OF A MOOD

아이 메이크업으로 완성하는 그날의 분위기. (위부터 차례로) 크리스찬 디올 뷰티 디오스 5 컬러즈 #279 데님 다양한 인자의 펠이 가미된 네 가지 블루 톤과 베이지 컬러로 구성된 아이샤도우 팔레트. 7g 10만1천원. 문의 080-342-9500 버버리 뷰티 아이 퀴드 팔레트 05 더스크 토포 쉬머, 세틴 모브, 클 브라온의 조화로 데일리 메이크업에 활용도가 높다. 4.7g 8만17천원. 문의 080-850-0708. 아워글래스 큐레이터 아이샤도우 팔레트 #퓨처리스트 비건 포뮬러로 눈기에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며 선명한 발색이 특징이다. 4g 10만3천원. 문의 02-511-1529. 돌체앤가버나 뷰티 에버 아이크 아이 팔레트 #크롬 스타 클 그레이와 실버 톤의 조화로 시크하고 세련된 메이크업으로 연출 가능하다. 6.5g 8만6천원. 문의 1644-4490. 골레드브 보뎀 아이 컬러 퀴드 #504 파스텔 티 사파리 표범과 영양의 환상적인 티타늄에서 영감을 받은 네 가지 컬러로 은은한 포인트와 자연스러운 음영을 완성하는 아이 팔레트. 6g 11만원. 문의 080-564-7700.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 Crush on Crush

가브리엘 사넬이 애호하던 입체적이면서도 풍성한 펠링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사넬 파인 주얼리의 상징, 코코 크러쉬에서 또 한번 진화한 피스들을 선보인다. 그중 코르셋을 저지 소재로 대체하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했던 가브리엘 사넬의 철학에서 모티브를 얻은 유연한 매력의 코코 크러쉬 초커는 슬라이딩 잠금장치로 마무리했다. 덕분에 위치를 잘 잡아주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변형 가능한 이어링, 컷트 실루엣으로 대담한 볼륨감을 선사하는 코코 크러쉬 컷트까지, 재미있는 변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흠칠 예정. 문의 080-805-9628

## Charmed Together

룩에 위트 있는 포인트를 더해줄 아이코닉한 백 & 백 찻.



(위부터 차례대로) 루이 비통 모노그램 탄생 130주년을 기념해 선보였으며, 시그니처 패들록과 인스클루시브 태그를 더한 알파 BB, 비비엔 패서니스타 백 찻, 모노그램 엠블럼으로 완성한 마이 비비엔 체인 백 찻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귀여운 말 모티브의 '로데오 (Rodeo)' 백 찻 94만원, 렘스킨 소재의 에르메스 필로 백 7백16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양쪽 옆면 원 디자인의 스물 뉴 러기지, 핸드백에 스카프와 함께 연출 가능한 골드 메탈 소재의 트리온프 링, 실크 트릴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문의 1577-8841. 귀여운 고양이 형상화한 르 사 드 라 메종 키 링 86만원, 아이코닉한 베인 백을 재해석한 아이보리 컬러의 드베인 백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5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 Green Elegance

지난 1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LVMH 워치 워크에서 위블로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독특한 컬러를 담은 시계를 선보였다. 바로 현재 가장 트렌디한 컬러, 상쾌하면서도 우아하고 조화로운 파스텔 무드의 세이지 그린이다. 요하게 빠져드는 수채화 물감 같은 컬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며 평화로운 기분을 선사한다. 가벼운 착용감을 위한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로 완성했으며 지름 33-42-45mm, 세 가지 사이즈로 제공한다. 문의 02-540-1356

## PERFORMANCE

### 베자르 발레 로잔(BBL)과 김기민의 만남

현대 발레 생태계의 혁신을 이끈 베자르 발레 로잔(Béjart Ballet Lausanne, 이하 BBL)이 25년 만에 서울을 다시 찾는다. 특히 당대를 눈부시게 수놓고 있는 세계적인 무용수 김기민과의 앙상블도 예정되어 발레 애호가들의 열광을 자아낸다. 오는 4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서울 GS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BBL 공연 예가다. 1987년 창단한 스위스 로잔 기민의 BBL은 20세기 무용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천재 안무가' 모리스 베자르 (Maurice Béjart, 1927-2007)의 살아 있는 유산이다.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인 모리스 베자르는 전통 발레의 형식을 넘어 음악·철학·집단지 에너지 결합한 독창적인 무용 세계를 빛낸 인물. 거장의 혁신적 정신을 계승한 BBL은 베자르의 재차로 결출한 무용수였던 줄리앙 파브로 (Julien Favreau)를 예술감독으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해 안무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무대는 2011년 대전 공연 이후 15년 만에 한국 방문이자, 서울 공연으로는 2001년 이후 25년 만에 귀환이다. 라벨 '볼레로'의 단순하지만 강렬한 선율을 몸짓으로 극대화한 베자르의 대표작 '볼레로', 스트라빈스키의 강렬한 음악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명작 '볼새'를 선보인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헨릿과 조니 캐시'의 음악을 통해 존재의 여운을 시작으로 돌아선 '바이 바이 베이비 블랙버드'는 아시아 초연작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헨릿' + '볼새' + '볼레로'로 구성된 프로그램 A(백20분)와 '바이 바이 베이비 블랙버드' + '볼새' + '볼레로'로 짜인 프로그램 B(1백 분)가 있다.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수석 무용수이자 무용계의 오스카상인 부부아 드 라 당스 최고 남성 무용수상을 받은 김기민은 '볼레로'의 주역으로 두 차례 등장하는데(프로그램 A), 그의 올해 첫 국내 무대다. 다채로운 영감과 에너지로 돋보이는 이번 공연의 예매는 NO. 티켓과 GS아트센터를 통하여 된다. 문의 인아츠프로덕션 02-6954-7760





대만 땅에 첫 발걸음을 디딘 여정에서 필자의 뇌리에 진하게 각인된 첫인상은 '오리고기 스시'였다. 타이베이(臺北)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는 북동부의 일란(宜蘭) 지방으로 이동해 행사에 참석했는데, 사후 피로연에서 'cherry duck'이라 불리는 명물 오리고기를 '예술적으로' 문친 윤기 나는 밥알 위에 정성스럽게 얹어 건네주는 스시가 제일 인기를 끌었다. 런던 유학 시절, 유난히 음식을 즐기고 요리도 잘하는 대만 친구를 뵈기에 자연스레 미식의 나라로서 기대치가 높아진 편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야말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식도락의 쾌감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맛 자체는 선연하게 떠올릴 수 없지만 그 미각을 맛닥뜨린 순간만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 이렇듯 이채로움과 품격을 동시에 갖춘 미식의 위용에 비하면 '시각적 스펙터클'은 수도인 타이베이로 돌아가서도 꽤 심심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509.2m)을 위시해 고층 건물이 그려내는 날렵한 스카이라인이 나름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세련된 화려함의 퍼레이드는 아니었다. 대만의 개발은 '선남후북'으로 진행됐고 '타이베이시'라는 행정상 명칭도 1920년에야 등장했다고 하니, 타이베이는 분명 현대적인 도시지만 오래된 감성을 품은 건물이 많다. 뻘뻘한 고층 건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시 이미지의 서울에서 자연 영향일까? 타이베이의 고아(古雅)한 매력은 오랜 세월 속 풍파를 겪으면서도 기품 있게 여문 나이트처럼 정겹고 근사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많았다.

## 타이베이(Taipei) 이야기 빌딩 숲 사이의 '작은 오아시스'를 보다

그 이후로도 타이베이에 여러 차례 가봤지만 딱히 변화한 상점가에서 열렬히 쇼핑을 즐기거나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상에 자주 등장하는 '핫플' 투어를 해본 적은 거의 없다. 늘상 비엔날레, 아트 페어, 미술관이나 갤러리 전시 오프닝 등으로 점철된 동시에 미술을 탐색하는 '출장 루트'를 소화하느라 분주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타이베이 101 근처에 있는 미쓰코시 백화점에 문을 연 리서리 카페 바사 커피(서울 플래그십 매장보다 반년 정도 일찍 들어섰다), 단순한 서점을 넘어 대만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한 청핀 서점, 유장한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이나 딱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외관의 웅장함에 이끌려 구경하게 된 국립중정기념당 등이 방문지 목록에 들어 있다. 한국 여행자들이 필수 코스처럼 섭렵하는 도심 전문점 단타이핑도 아주 최근이야 가봤다. 개인적으로는 명물로 여겨지는 샤오롱바오보다 볶음밥이 더 맛있는 단타이핑의 본점이 자리한 용강계 일대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동네 중 하나인데, 대만다운 예스러운 감성이 흐르는 가운데 아기자기한 기념품 숍이나 디지털 가게, 카페 등이 모여 있다. 이 동네는 중국 베이징 출신의 저자로 꾸준히, 자주 대만의 도시를 탐방해온 여행 작가 시린(喜琳)이 <TAIPEI SHOP+ING>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 책을 사두고도 항상 바쁜 출장 탓에 꼼꼼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올 초, 타이베이 도심에서 빌딩 숲이 빚어내는 언뜻 흔하고 건조한 풍경 이면에 자리한 작고 활기찬 동네를 산책하게 됐다. 타이베이 동쪽 송산구(松山區)에 위치한 민생 커뮤니티/푸진계(民生, 富錦街區) 일대. 송산구는 K-팝 스타들의 공연 무대에도 자주 등장하는 타이베이 아레나, 라오허 야시장, 송산 공방 등이 위치한, 타이베이 101로 대표되는 신이구, 젊은이들이 몰리는 시먼딩, 레스토랑 등이 밀집한 중산구 같은 다른 핵심 상업지에 비하면 덜 변화하고 차분하게 다가오는 지역이다. 원래 필자에게 송산구의 이미지는 키가 훗칠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대로의인 '둔화북로'로 강하게 박혀 있었다. 마침 타이베이 리서리 호텔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온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와 지난봄 새롭게 등장한 카펠라 타이베이가 모두 둔화북로에 자리한다. 타이베이 101이나 국립고궁박물관, 유서 깊은 타이베이 비엔날레가 열리는 타이베이 시립미술관(TFAM) 같은 명소들이 그리 멀지 않아 도심의 핵심 상권은 아니지만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그런데 둔화북로를 거닐다가 살짝 방향을 틀면 갑자기 도시의 리듬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 민생 커뮤니티/푸진계 일대가 나온다. 알고 보니 출간된 지 10년쯤 된 시린의 책에서 애정을 담아 한 챕터로 다룬 '라이프스타일 거리' 중 하나다. 현지 감성의 부티크, 라이프스타일 숍, 개성이 돋보이는 카페 등이 포진해 있지만, 주거 지역과 조화롭게 섞인 '감성 산책길'의 초기 단계를 담아낸 셈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더 다채로운 풍경으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나무 그늘길 따라 여유로운 산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작은 오아시스'로서의 면면이 빛난다. 어쩌서 이 일대는 우리의 신사동 가로수길 사례처럼 문화적 다양성이 희석되고 상권이 지루해진 아쉬운 변화를 피해 간 걸까?



### 송산구 '감성 산책길'

# 도시의 리듬 속 여유로이 거닐기

싱그러운 잎사귀나 덩굴이 건물을 덮고 있는 중·저층 건물, 자그마한 상점, 저밀도의 거리, 느린 아침, 동네 주민이나 일터로 삼고 있는 '내부인'이 아닌 외부 방문객도 유입되는 약간 분주해지는 오후, 번잡스럽지는 않지만 생기가 도는 저녁. 오래된 주거지에서 점차 변화를 겪으며 힙한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지로 변모해가고 있는 송산구의 민생 커뮤니티와 푸진계 일대의 풍경이다. 분명 누군가의 의도가 영향을 끼쳤지만 인위적인 변화가 아닌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진화를 일궈온 이 동네에 어떤 일이 생겨난 것일까?



“인간적인 활기가 넘치는 공간, 사람과 인사를 건널 수 있는 장소에서의 삶, 오락과 문화 공간, 자연환경(수목, 사잇물, 신선한 바람 등)은 일상생활에 있어 제2의 자연이며 없어서는 안 될 환경이다”

—사사키 마사유키 <창조 도시를 디자인하라> 중에서



직선으로 시원하게 뻗은, 그러면서도 폭 넓은 둔화북로에서 도보로 불과 몇 분만 가면 붐비는 도심과는 살짝 동떨어진, 송산구의 조용한 주거 지역이 나온다. 1960~70년대 미군이 계획적으로 건설한 주거 지역으로, 공원과 녹지가 풍부하고 낮은 건물과 골목, 그리고 작은 상점이 평화롭게 자리한 민생 커뮤니티다. 근처에 오래된 송산 공방이 바라다보일 뿐 대형 랜드마크, 휘황찬란한 쇼핑몰도(아직은) 없다. 대신 학교와 공원, 웬지 정감 가는 작은 빵집과 채소 가게, 그리고 반려견과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치서, 기분 좋은 느슨함이 깃든 일상 풍경이 차분하게 펼쳐진다. 키 큰 나무들이 공중에 기다랗게 팔을 드리워 천연 아케이드처럼 동근 곡선을 완만하게 그려는 질푸른 아치들은 '동네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한데, 여기 사람들은 '그린 터널' 또는 '그린

캐노피'라고 부른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래서 조금은 건조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둔화북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갑자기 시공간이 바뀐 듯 느긋하고 세련된 정취가 흐른다. 나무 그늘이 드리운 거리를 비롯해 이 동네에서는 20개의 비교적 작은 공원, 언뜻 봐도 맛집의 기운이 느껴지는 레스토랑, 창의적인 부티크가 눈에 띈다. 디자이너와 예술가, 광고 스튜디오가 조용하게 터를 잡고 있기도 하다. 도심의 한 자락에 있으면서도 삶의 질을 중시하는 '느림의 미학'이 바로 여기에서 숨 쉬고 있다.

#### #창조적 영감을 담뽕 주는 상점들의 매력

오후 3시경 나선 산책. 시야의 끝에 자리한 송산 공방의 모습을 스쳐 멋스러운 나무 그늘길을 건너노라니 어느새 약간 출출해졌다. 사실 첫 목적지의 정체성을 모른 채 어떤 건물의 입

1 나무가지와 잎사귀가 아치처럼 그려져 지붕 모양으로 우거져 '그린 캐노피' 또는 '그린 터널'로 불리는 풍경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타이베이 송산구의 민생 커뮤니티/푸진계 일대. 주거지에서 출발해 2010년대 초반부터 카페, 편집숍, 음식점이 생기면서 트렌디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점차 '조용한데, 힙한' 감성의 라이프스타일 상권으로 주목받게 됐다. 2, 3 'but. we love butter'라는 브랜드를 내세운 인기 만점 쿠키 & 디저트 가게. 언뜻 양복점을 연상시키는 입구의 실내 공간이 있다. 주로 테이크아웃 손님만 있지만 차나 커피와 함께 시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4 타오위안 국제공방이 생기기 전에 주요 관문 역할을 했던 타이베이 송산 공방 모습. 민생 커뮤니티/푸진계 일대는 공방 근처라 주로 중·저층 건물이 많기도 하다. \* 1~4 사진 고정연

들이 전시된 또 다른 결의 공간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소하고 풍부한 향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카페가 등장한다. 알고 보니, 현지에서 SNS용 사진 명소로도 잘 알려진 인기 만점 쿠키 & 디저트 가게였다. 'but. we love butter'라는 브랜드를 내세운 이 가게에서는 주로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해서 포장 꾸러미를 들고 나가지만, 차와 더불어 쿠키를 시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생치즈가 들어 있는 달콤짭짤한 '허그 미(Hug Me)'가 '최애'였다. 패션으로 눈을 돌리면, 식도락과 달리, 일주일 에 서너 번만 여는 가게가 꽤 있어서 그런지, 한 눈에 쿨한 품목의 집합소임이 명백해 보이는 편 집합들이 단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다채로운 개성이 넘치는 온갖 원단과 귀여운 부속품으로 '하루밖에 없는' 크고 작은 가방을 만드는 상점에서 양중맛은 예코 백을 발견해 아쉬움을 달랬다. 거의 1세기의 이력을 지닌 타이프라이터 같은 구식 기계라든가 수십 년 된 빈티지 카메라, 일본 에도시대의 목판화인 우키요에 에디션까지 만물상처럼 갖춘 디자인 숍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도 작은 판화라도 골랐을 것이다. 어느새 노을이 지면서 어스름하게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 대만의 인기 파자인 에그를을 직접 만들어 파는 가게에서도 맛보기를 하고는 바깥에 나오니, 어둠이 깔린 저녁에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사당에 걸린





붉은빛 초롱들이 반짝거린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또 다른 대표 디저트인 파인애플 케이크(펄리수)를 섭렵하러 나섰다. 펄리수 브랜드로 유명한 서니힐즈의 지점이 이 동네에 자리하는데, 여기서도 차와 곁들인 펄리수 시식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대만에선 흔한(?) '넉넉한 인심'의 작은 증표라는 게 현지인들의 설명이다(물론 잘되는 가게의 판매한 대접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디저트 여정'만으로도 은근히 배가 불러왔지만, 이미 약속해놓은 저녁 식사가 걱정되기도 이 동네의 레스토랑에서 미식을 탐할 수 없기에 다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짐이 더 아쉽게 느껴졌다.

**#걷는다는 것, 그리고 속도를 늦춘다는 것**

사실 여행 작가 시린(喜琳)의 책에는 여러 카페와 상점이 소개되어 있었지만 벌써 출간된 지 10년도 더 흐른 터라 현재의 푸진제/민생 커뮤니티 일대에는 훨씬 더 다양한 이름을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그래도 800m 길이로 펼쳐진 가로수길인 푸진제의 터줏대감이자 특유의 생활 감성이 녹아든 상권의 주된 시작점인 푸진수(Fujin Tree) 브랜드는 더 커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다. 창립자는 일본에서 체류하다 부인과 함께 고국에 돌아온 대만의 사업가 제이 우(Jay Wu). 그는 유럽의 소도시 같은 평온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닌 민생 커뮤니티와 수려한 나무가 가득해 거리 전체가 녹음이 우거진 산책

로 같은 푸진제를 발견하고는 단번에 반했다. 이들 부부는 먼저 편집숍인 푸진제 355를 열었다(2012년). 부인 미도리는 자신이 좋아하던 브랜드를 일본에서 직접 공수하고 타이완 현지 디자인 명물을 수집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다. 지금은 이 거리에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간을 거느린 건 물론이고, 해외로도 확장 중인 '푸진수'라는 브랜드의 탄생이다. 급격한 확장은 아니었지만 느리게 걷는 도심 속 힙한 산책로의 독특한 감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 일대가 창의적이고 세련된 상권으로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흔한 스토리 전개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망가지지 않고 여전히 특유의 바이트를 유지하고 있다. 덜 과시적이고 회전율보다 로컬 팬을 중시하며, 체인점이 거의 없는 편이다. 현지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매력적인 동네'지만 원래 조용한 주거 지역이라 느긋한 생활감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다. 다시 말해 '힙한데, 조용한' 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외부인도 찾지만, 주 소비층이 여전히 이 동네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젠' 단골인 덕분이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업자들도 콘셉트의 '힙함'에 편승해 '빨리 팔기'보다는 '꾸준히, 오래 꾸러갈' 생각을 하는 태도가 일반적이라는 누군가의 해석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흥미롭게도 카펠라 타이베이의 총지배인 데니스 라우벤슈타인(Dennis Laubenstein) 역시 이 동네의 주민이다. 그에게 이 동네는 근무지 인근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어지는 생활 반경이다. 그래서 카펠라 타이베이에서는 이 동네를

1 짚은 초록의 식물에 둘러싸여 있는 푸진제 일대의 한 레스토랑. 이 일대에서는 1백 년이 훌쩍 넘은 반안트리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 송산구 민생동로에 위치한 'Mr. Roof' 바삭하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식감으로 널리 사랑받는 과자인 대만의 인기 간식 에그롤(단짠안) 가게. 3 대만산 토종 파인애플만 쓰는 유명한 펄리수 브랜드 서니힐즈(Sunny Hills) 송산구 민생공원점. 4 빈티지 카메라 같은 기기와 소품, 그리고 일본 에도시대의 목판화인 우기요에 같은 예술 작품도 구할 수 있는 만물상 같은 디자인 숍. 5, 6 카펠라 타이베이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3시간 동안 탐방하는 '문화 산책'을 진행하는데, 호텔 인근에 있는 민생 커뮤니티와 푸진제 코스도 있다. 이 일대를 활동 무대의 하나로 삼고 있는 화가 아리엘 치(Ariel Chi)와 협업해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진은 호텔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그의 전시 풍경. ※ 1-6 사진 고성연



'보여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보는 '로컬 문화 산책'의 장으로 삼기로 했다. 카펠라에서 직접 밖으로 나가 거닐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득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3시간짜리 '카펠라 큐레이츠(Capella Curates)' 프로그램의 목록에 송산구 산책도 포함돼 있는데, 라우벤슈타인이 이마금 컬처리스트(culturist)를 맡아 몸소 산책을 이끈다. 연초 상수기라 바쁘지 않다는 질문에 그는 "이번 주에만 벌써 세 차례"라고 답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제가 실제로 사는 동네가 아니었다면 산책 가이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제가 산책을 하고, 쇼핑을 하고, 저녁에는 식사를 하는 제 동네니까요."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일상 경험을 호텔 서비스에 녹여내며, 투숙객들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밀도 높은 경험을 선사한다. 예컨대 카펠라 타이베이는 이 동네를 무대로 활동하는 화가 아리엘 치(Ariel Chi)와 협업해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호텔 갤러리에서 그의 전시를 직접 꾸리기도 한다.

동네 홍보대사를 맡볼게 하는 데니스 라우벤슈타인의 행보를 보노라면 원조 홍보대사인 제이 우가 했던 말이 되짚는다. "브랜드의 발전은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모든 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푸진수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럭셔리 매거진 <테틀러>와의 인터뷰 내용을 빌리자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다른 타이베이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한 이 동네의 분위기를 "거리를 통째로 사버리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유별나게 아끼는 제이 우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누빈다고 한다. 그는 한때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바람에 위기도 겪었지만 일본에 파인 다이닝을 선보이며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이제는 뉴욕과 런던 등 서구권 도시로도 영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주된 동기는 '세계를 대만으로 들여오고, 대만을 세계로 알리려는 것'이다. 대만 사람들의 '생활 미학'이 (궁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결단이다. 푸진수의 확장이 과연 다른 도시에서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걱정되기도 하지만, '미감(美感)'도 하나의 문화라는 그의 신념 어린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

글 고성연(타이베이 현지 취재)

**카펠라 타이베이(Capella Taipei)**  
**‘의미 있는 발견’이 시작되는 캔버스**

요즘음 글로벌 호텔 생태계에서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불려가는 브랜드를 꼽자면 카펠라를 빼놓을 수 없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중국(상하이, 쑤안, 마카오), 인도네시아(발리),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온 이 럭셔리 호텔 그룹의 공간들은 각종 베스트 순위에 빈번히 이름을 올리고 여행자들 사이에서 팬을 자처하는 호의적인 입소문을 타왔다. 세심한 배려가 깃든 서비스, 현지의 역사와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흥미롭게 엮어 투숙객들에게 힐링과 탐구적 경험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이 그 인기의 바탕을 이룬다. 이 브랜드에 대한 궁금증이 쌓여가던 차에 지난해 4월 문을 연 카펠라 타이베이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카펠라(Capella)'라는 명칭은 천문학 애호가들에게는 마차부자리의 으뜸별로 친숙한 이름이다. 마차부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이 'α(알파)' 별은 주변 별들과 함께 커다란 오각형을 이룬다.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철의 일등성 중 북동쪽 하늘에 제일 먼저 뜨기에 '겨울 전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카펠라 호텔 & 리조트(Capella Hotel & Resorts)의 심벌도 별 모양이다. 마침 필자가 겨울철에 찾은 카펠라 타이베이는 1백 년 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늘어진 폭이 넓고 정돈된 가로수길인 둔화북로를 지나다 보면 절로 눈길이 가는 커다란 고층(20층) 건물에 자리하는데, 꼭대기에 별 장식을 둔 늘어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일등성의 무게감에 어울리는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진입로를 지나 살짝 안에 숨어든 정갈한 호텔 입구로 들어서면 중앙의 벽을 수놓은 아름다운 테피스트리가 시선을 사로잡는 실내 공간이 반겨준다. 대만의 인기 낀 산과 유려한 계곡의 자연미를 포착한 타이난 출신의 예술가 리첸린(Lee Chen-Lin)의 작품이다. 전통과 현대적 도시 서사의 의미에 고요한 시적 감성이 스며든 '모던 맨션(Modern Mansion)'이라는 호텔 디자인의 키워드가 저절로 수렴되는 첫인상이다. 지난봄 문을 연 이래 타이베이 최고 럭셔리 호텔의 위용을 뽐내고 있기에 세련된 인테리어로 빛나는 공간을 상상했다면, 그도 분명 맞았지만, 어쩌면 이곳에서 그려질 마음의 풍경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 단순히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거주하는 듯한 감각' 속에서 도시의 속도를 재정의하는 경험을 선사해줄 호텔로 면밀히 기획되고 세심한 손길로 꾸러지고 있어서다.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커다란 저택 안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살롱이 계속 펼쳐지는 듯한 카펠라 타이베이의 공간 디자인은 이 같은 지향점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현지의 정서를 투영한 문화적 감각을 중시하는 호텔의 브랜드 철학이 묻어난다. 로비와 식당 공간이 자리한 1층과 2층을 비롯해 체크인/아웃을 진행하고 각종 컬처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공간이다. 또 다과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투숙객 전용 휴식 라운지인 '리빙 룸(Living Room)' 등은 전반적으로 우아한 '모던 클래식' 분위기 속에 각각의 세부적인 결을 갖춘 시각적 여정을 선사한다. 그리고 마침 동안 머무른다면 호텔의 세계관을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려한 감성의 연결 고리가 느껴진다. 앙드레 푸는 "제 비전은 편안한 럭셔리를 조용히 큐레이션한 프라이빗 저택으로 해석하며, 현대적 감각과 문화적 특색을 통합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유의 '여유로운 리듬'이 느껴지는 그의 개성은 호텔 곳곳에서 부드럽고도 생기 있는 곡선과 따뜻한 색감으로 나타난다. 객실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앙드레 푸의 디자인 감성을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은 1층에 자연관이 스며드는 창들을 빚으며 자리한 올데이 라운지 '플룸(Plume)'이다. 삼թ緋인을 걸들인 꿀을 얼마든지 제공하는 조식을 비롯해 애프터는 티, 커피나 라테탈 등을 즐길 수 있는 천천후 라운지인데, 프랑스 예술가 엘사 라모(Elsa Rameau)의 커미션 작업으로 대

1 카펠라 타이베이는 타이베이 아레나를 지척에 두고 있으며 타이베이 101 전망대와 푸본아트 뮤지엄 등이 자리한 신이 자구, 맞닿고 소풍 거리가 많은 용강제,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등과 멀지 않은 송산구에 위치한다. 카펠라 호텔 그룹은 2년쯤 뒤 서울 내곡동 한인마을에 '자연과의 동행'을 지향하는 럭셔리 레지던스를 선보일 예정이기도 하다. Photo by 고성연 2 웰컴 라운지이자 다과를 걸들일 수 있는 휴식처, 그리고 카펠라 호텔 그룹이 차별적으로 내세우는 '컬처 큐레이션'의 정수를 담은 다목적 공간인 '리빙 룸(Living Room)'. 3 카펠라 타이베이는 홍콩 출신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앙드레 푸가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았다. 4 대만의 산수를 수놓은 테피스트리가 정중앙에 걸려 있는 1층 호텔 입구. 5 '풀 테라스 스위트'의 거실, 슈퍼리어 룸부터 럭셔리 스위트까지 86개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다. ※ 이미지 제공, Capella Taipei

**호텔을 넘어 도시의 일부로 스며들다**

그래드 경험의 캔버스의 전당으로는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던 천천후 공간인 '리빙 룸'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카펠라 호텔 그룹이 차별적으로 내세우는 '컬처 큐레이션'의 정수를 담은 공간이어서다. 투숙객을 맞이하고 하루의 계획을 빚어내기도 하는 이 공간은 이름대로 안락한 거실처럼 꾸며졌다. 여기서 단순한 컨서터를 넘어 취향을 읽어내며 맞춤형 제안을 해주는 컬처 리스트의 존재가 빛을 발한다. 아침저녁으로 호텔 일대의 동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리추얼' 세션이라든지, 간이 워크숍 같은 방식으로 현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카펠라 모먼트' 세션 등 짧지만 알찬 프로그램이 투숙객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무료). 예컨대 필자의 경우에도 대만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원을 차지하는 하카족에 대해 알아보는 세션이라든지, 대만 현지의 차 문화와 산지를 익히는 '시음' 세션으로 기대보다도 훨씬 더 밀도 있고 흥미로운 경험의 여정을 누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네 커뮤니티와 짧게나마 호흡을 하며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자 한다면 '카펠라 큐레이츠(Capella Curates)'라는 탐방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몇 차례 거쳐 가기는 했지만 그 열매를 잘 물렸던 송산구의 진면목을 일부나마 느끼고 배움과 힐링이 함께하는, 차후에 보다 깊이 있는 문화적 여정으로 이끌 수도 있는 '발견의 산책'이다. 어쩌면 카펠라 타이베이가 진정한 흥미로운 지점은 럭셔리 호텔 공간의 경험이 아니라 완성된 공간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글 고성연(타이베이 현지 취재)



# Awakening Spring

나비가 날아들고 꽃과 식물이 만개하며  
봄의 생동감이 피어오른다.  
반클리프 아펠 럭키 스프링 컬렉션의  
숭고한 아름다움이 머무는 순간.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위부터) 매종의 기술력과 진귀한 스톤,  
자연의 생명력을 향한 찬사를 담은 럭키 스프링  
컬렉션. 머더오브펠 매화꽃을 옐로 골드 비즈로  
감싸 한층 선명하게 표현한 럭키 스프링  
이어링, 라피스 라줄리와 블루 아게이트,  
그리고 골드로 정밀하게 세공한 나비를 중심으로  
머더오브펠 은방울꽃 두 송이와 머더오브펠  
매화꽃 한 송이, 그린 아게이트 잎사귀를 품은  
럭키 스프링 버터플라이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위부터) 그린 아게이트 잎사귀, 머더오브펠 은방울꽃과 매화꽃 위에 존재감 확실한 나비 한 마리를 수놓은 럭키 스프링 버터플라이 클림, 지름 33mm 케이스와 푸른빛 기요세 다이얼에  
머더오브펠 매화꽃을 여러 층으로 배치해 풍성한 입체감을 더하고, 12시 방향에는 우아하게 날갯짓하는 나비를 장식했다. 은방울꽃 봉오리 형태의 창과 다이아몬드 베젤이  
특징인 레이디 럭키 스프링 버터플라이 워치 모두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옐로 골드 체인을 따라 머더오브펠 은방울꽃과 그린 아게이트 임사귀, 라피스 라줄리와 블루 아게이트로 구현한 나비, 활짝 핀 머더오브펠 매화꽃 모티브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교하게 세팅한 럭키 스프링 버터플라이 롱 네크리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머더오브펠 매화꽃과 은방울꽃 봉오리가  
오픈 구조로 버터플라이와 마주하며,  
당장 날아오를 듯한 생동감을 전하는  
럭키 스프링 버터플라이 비트윈 더 핑거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에디터 김하얀



에디터 김하얀

# Heritage in Style

타 주얼리 메종과 다른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행보를 통해 주얼리를 넘어 아트 피스에 가까운 하이 주얼리를 선보여온 부쉐론. 올해 메종은 아카이브에서 영감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이 주얼리 '이스투아드 스틸(Histoire de Style)' 컬렉션, 'Nom : Boucheron Prénom : Frédéric'을 통해 창립자 프레데릭 부쉐론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1

“변화의 힘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철학 아래 감각적인 하이 주얼리를 전개해온 메종 부쉐론. 1858년 프레데릭 부쉐론(Frédéric Boucheron)이 파리에 첫 번째 부티크를 열며 역사를 시작했다. 동시대 주얼리들은 전통을 답습했지만, 그는 제작 규칙을 새롭게 정의했고, 독창적이며 독보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러한 철학과 정신은 1백6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방돔 광장(Place Vendôme)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의 선구적 정신을 잇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완(Claire Choise)은 이번 컬렉션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천재성을 증명한 창립자의 초상에 집중했다. 방돔 광장에 최초로 부티크를 연 주얼리인 프레데릭 부쉐론은 관습을 거부하며 파리지연 주얼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특히 자연, 그중에서도 불완전함에 깃든 사실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작품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주얼리의 디자인과 착용 방식에 독창적 언어를 적용하고자 했다. 그 덕분에 혁신적 착용 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얼리를 탄생시킬 수 있었으며, 주얼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오버사이즈 주얼리를 창조해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작업에 언제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시대가 지닌 열망에 대한 부응이 담겨 있기에 가능했다.

클레어 슈완은 프레데릭 부쉐론의 아카이브에서 영감받아 4점의 하이 주얼리를 디자인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컬렉션 출시와 함께 공개되는 2026 이스투아드 스틸(Histoire de Style) 캠페인은 흑백 톤으로 연출되어 메종 아카이브의 시각언어를 환기하고, 각 작품의 본질에 집중하게 한다. 스튜디오는 4개의 챔퍼에 맞춰 4벌의 드레스를 맞춤 제작했는데, 이는 창립자가 살던 시대 여성들의 스타일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오토 쿠튀르의 아버지와 불리는 샤를 프레데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를 떠올리게 한다. 컬렉션은 2026년 1월 26일, 메종의 역사적 근본인 방돔 광장 26번지(26 Place Vendôme)에서 공개했으며, 오텔 드 노세(Hôtel de Nocé)의 프라이빗 아파트먼트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관객들에게 창립자의 시대 속 파리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회를 선사했다. 2026년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를 통해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1 2026 이스투아드 스틸 하이 주얼리 컬렉션 캠페인 컷으로 ‘어드레스(The Address)’ 네크리스를 돋보이게 하는 소매 디자인의 드레스에 매치해 건축적인 인상을 준다. 2 ‘어드레스(The Address)’ 네크리스의 영감이 된 1939년 핑크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바게트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 ‘어드레스(The Address)’ 네크리스. 4 ‘스파크(The Spark)’ 네크리스에 영감을 준 1884년 드롭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5 ‘스파크(The Spark)’ 네크리스. 6 ‘실루엣(The Silhouette)’에 영감을 준 아카이브 피스. 화환과 진주로 장식한 스텐드 오너먼트(1880년). 7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 가능한 ‘실루엣(The Silhouette)’. 8 폴 르그랑(Paul Legrand)이 제작한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 라지 버전의 최초 드로잉(1879년). 9 ‘언타임드(The Untamed)’ 네크리스.

## THE ADDRESS

1893년, 프레데릭 부쉐론이 자리 잡은 방돔 광장에서 출발한 ‘어드레스(The Address)’. 당시 방돔 광장은 뤼 드 라 페(Rue de la Paix) 옆 조용한 주거 지역에 불과했지만, 그는 튀일리 정원으로 산책을 나서는 세련된 파리 여성들과 광장의 장엄한 건축미에서 가능성을 읽어냈다. 특히 하루 종일 햇살이 드는 코너 건물인 26번지는 소원도에 전시된 쟁스톤을 가장 찬란하게 빛낼 조건을 갖추었다. 그의 선택은 곧 상징이 되었고, 방돔 광장은 전 세계 하이 주얼리를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클레어 슈완은 부쉐론 메종의 시적인 방돔 광장의 팔각 형태를 연상시키는 아카이브 네크리스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재탄생시켰다. 선을 더욱 또렷하게 다듬고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블랙 레커와 조합해 강렬한 대비를 완성했다. 중심에는 에메랄드 컷 모티브가 반복되는 미장 아빔(mise en abyme) 구조가 자리하며, 중앙에 10.0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바게트 컷, 라운드 컷,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건축적으로 레이어링해 빛을 극대화했다. 블랙 레커로 둘러싸인 칼라는 여러 관절 구조로 이루어졌음에도 하나의 조각처럼 자연스럽게 목선을 따른다. 중앙 모티브는 분리해 링으로도 착용 가능하다. 총 1천1백7시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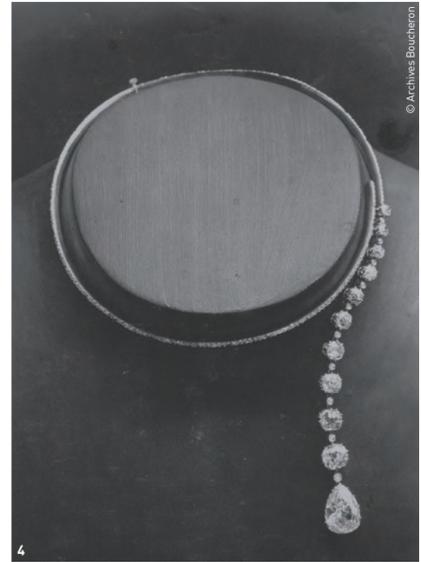
© Archives Boucheron



© Archives Boucheron

## THE SPARK

1879년, 프레데릭 부쉐론은 세계 최초의 잠금장치 없는 네크리스,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선보였다. 착용자가 주얼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얼리가 신체에 적응해야 한다는 그의 발상에서 출발한 혁신이었다. 부쉐론 아틀리에에서는 이를 위해 수많은 미세 부품이 연결된 히든 스프링 블레이드 구조를 통해 유연한 착용감을 구현했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했다. 장인 정신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1889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클레어 슈완은 1884년 촬영한 아카이브 사진에서 영감받아 다양한 기하학 컷 다이아몬드를 배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0.81캐럿 마키즈 컷을 시작으로 1.71캐럿 아서 컷, 1.75캐럿 오벌 컷, 2.09캐럿 핵사고널 컷, 2.02캐럿 페어 컷, 3.07캐럿 에메랄드 컷, 2.96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으로 이어지며, 바게트 컷 헤일로로 둘러싸인 5.01캐럿 카이트 컷 다이아몬드에서 절정을 이룬다. 동시에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가 일정한 패턴으로 각 스톤을 서로 연결하며, 넥 칼라 부분 역시 전체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되어 있다. 이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를 완성하기까지 무게와 균형이라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며 유연한 연결 구조로 편안한 착용감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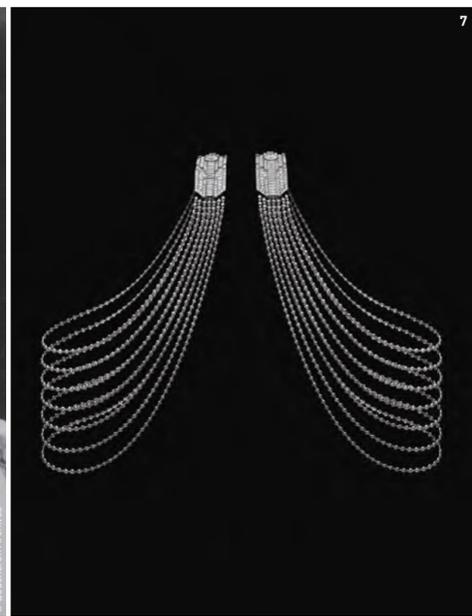
© Archives Boucheron



4



6



7

## THE SILHOUETTE

직물 상인의 아들이던 프레데릭 부쉐론은 여타 주얼리들과 다른 관점에서 주얼리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주얼리는 의복의 연장이자 개인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였다. 귀한 실크는 물론 레이스, 패브릭의 질감과 유연성, 드레이프에 대한 뛰어난 감각은 그만의 유산이었다. 그는 쿠튀르에 대해 축적한 지식을 주얼리 제작에 적극 활용했다.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놀라운 만큼 유연하며 여러 방식으로 착용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변형되는 주얼리를 창조한 것. 클레어 슈완은 이러한 유산에 경의를 표하며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신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고 움직임에 반응하는 유연한 작품을 완성했다. 이를 위해 부쉐론 장인들은 칼라 내부에 보이지 않는 잠금 시스템을 숨겨놓았다. 이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다수의 유연한 연결 구조 덕에 하나의 작품이 분해되어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이 주얼리는 총 여섯 가지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다. 네크리스와 더블 솔더 장식을 결합한 스타일, 베젤 세팅 다이아몬드가 대칭적으로 이어지는 2개의 솔더 브로치, 앞뒤 모두 길게 드리워지는 더블 드롭 소투아르 네크리스, 2개의 네크리스, 그래픽적인 초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을 장식하는 한 쌍의 브레이슬릿이다. 총 길이 7m가 넘는 베젤 세팅 다이아몬드 체인은 2천5백 개 이상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초커 네크리스에 대한 다이아몬드 라인은 쿠튀르에서 느껴지는 유연함을 표현했다. 또 초커에 장식한 1백 개가 넘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는 마운팅 이후에 다이아몬드를 계단식 패턴으로 배열해 깊이감과 조형적인 입체감을 부여했다.

## THE UNTAMED

동식물 관찰하는 것을 즐기던 프레데릭 부쉐론은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 주얼리를 제작했다. 그는 타 메종과 달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꽃 또는 식물에 관심을 두었다. 그중 그의 비전을 가장 온전히 상징하는 식물은 길지 않은 아름다움의 상징, 아이비였다. 클레어 슈완은 아이비 모티브를 적용한 최초의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 디자인을 재현하고 상징적 깊이를 현실로 구현하고자 했다. 원본 스케치를 충실히 따르되 현대적인 착용 방식에 맞게 재해석하며,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이비 가지가 신체의 곡선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구상했다. 이 디자인이 제시하는 길이와 균형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줄기와 잎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연결했으며, 그 위치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했다. 이러한 구조는 주얼리 착용 방식에 최대한의 자유를 제공하고자 한 부쉐론의 철학 아래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장인들은 다수의 유연한 연결 구조를 갖춘 멀티웨어 작품을 완성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 착용 가능하다. 아이비 가지를 이루는 여러 요소는 분리 가능하며, 롱 또는 숏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 칼라 네크리스, 브로치, 또는 헤어 주얼리로 착용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록 크리스탈로 표현한 작은 연매와 잎사귀 하나하나,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의도한 펄링 요소까지, 자연주의적 사실성을 추구했던 프레데릭 부쉐론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했다. 각각의 디테일은 살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사실적으로 구현되었다. 문의 080-822-0250 에디터 성정민



8



© Archives Boucheron

9

# The Time of Wonders



2026년 2월, 스위스의 안데르마트에서 열린 AP 소셜 클럽(AP Social Club)에서 선보인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의 새로운 마스터피스들은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는 브랜드의 철학과 매뉴팩처의 가치를 야심 차게 보여준다. 전통적인 방식의 시계 제작 기술, 기계적 혁신, 디자인의 재해석 등을 아우르는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으로 오데마 피게가 더욱 강력하고 웅장한 '시간의 지배자'로 자리 잡은 순간이다.

### 1백50년의 여정, 시계의 역사가 되다

세상에서 가장 세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계를 만드는 하이엔드 워치 하우스 오데마 피게. 1875년 스위스 르 브라쥬(Le Brassus)에서 탄생한 시계 브랜드로, 기계적 시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하이 컴플리케이션 모델을 잇달아 발표하며 명품 시계의 선두 자리에 올랐다. 특히 스틸 소재로 만든 팔각형 케이스가 특징인 로열 오크(1972년) 시계의 성공은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 이전 시계 중의 시계로 불리며 매년 '오데마 피게 소셜 클럽' 이벤트를 통해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여 전 세계 시계 저널리스트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6년 2월에 베일을 벗은 '오데마 피게 소셜 클럽 2026'은 스위스의 휴양지 안데르마트의 아름다운 산장 리조트에서 열렸다. 1백50년의 헤리티지가 집약된 회중시계를 비롯한 12개의 신제품은 전통적인 장인 정신부터 최첨단 기계의 혁신, 흉내 낼 수 없는 남다른 미학, 그리고 때론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으로 또다시 새로운 시계의 레전드를 만들었다. 12개의 신제품 중 이번 소셜 클럽 노벨티를 대표하는 4개의 시계를 통해 오데마 피게가 2026년에 보여주고자 하는 시계의 새로운 정의를 따라가본다. (스위스 안데르마트 현지 취재)

### 유니버설 캘린더를 탑재한 150 헤리티지 포켓 워치

오데마 피게가 1백50년의 탁월한 시계 제작 기술을 기념하며, 수 세기에 걸쳐 천문 관측 및 기술적 숙련도, 장인 정신을 쌓아온 인류의 역사를 기리는 150 헤리티지(150 Heritage) 회중시계를 공개했다. 시계의 심장부에서 박동하는 칼리버 1150은 칼리버 1000의 핵심 구조를 기반으로 크라운 푸셔와 조정 장치 등 모든 작동 메커니즘을 회중시계의 콤팩트한 형태와 용도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다. 최초로 유니버설 캘린더(universal calendar)를 도입했으며, 케이스 백을 통해 볼 수 있는 기계식 계산 장치는 무브먼트와 독립적으로 작동해, 천체 주기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30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47가지 기능을 갖추었으며, 사용 편의성을 기계적

혁신의 중심에 두었다. 다양한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도 선보이는 이 회중시계는 수작업으로 조각한 플래티넘, 빛나는 그랑 피(grand feu) 에나멜 기법, 수공 제작한 체인으로 장식되어 있다. 단 2개의 플래티넘 에디션으로 한정 생산되는 이 모델은 오데마 피게의 유산을 형성해온 여러 세대의 장인, 기술자, 선구자에게 헌정하는 작품이다. 주머니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최초의 초복잡 시계로, 전통과 혁신, 현대적 휴대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계학적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다.

### 네오 프레임 점핑 아워

1929년 출시된 시계(전신 모델 1271)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네오 프레임 점핑 아워가 공개됐다. 건축, 시계 제작, 그리고 상징적인 예술 운동의 재해석이 만난 이 새로운 라인인 1930년대의 디자인 코드를 되살렸으며, 케이스 부품과 무브먼트의 개발에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노하우가 담긴 수작업

1 극도로 복잡한 칼리버 1150과 유니버설 캘린더를 결합한 150 헤리티지 단 2개의 플래티넘 에디션으로 한정 생산된 이 모델은 여러 세대의 장인, 기술자, 선구자에게 헌정하는 작품이다. 2 매뉴팩처의 시계 제작 노하우를 1천997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무브먼트에 집약했다. 3 블루 반투명 에나멜로 채우고 수작업으로 조각한 별, 개적, 흰색 표식, 티타늄 색조의 디스크를 장착한 다이얼. 4 미니멀한 디자인, 수직의 둥근 주름, 공기역학적 선이 돋보이는 네오 프레임 점핑 아워는 1929년에 출시된 전신 모델 1271의 특징적 요소를 재해석했다.



으로 마감해 전통, 대담함, 혁신의 조화를 구현한다. 길게 뻗은 직선과 곡선을 결합한 전신 모델 1271은 유선형 모더니즘(streamline moderne)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에 미국에서 등장한 이 디자인 및 건축 운동은 속도와 현대성의 상징인 기차와 선박의 공기역학적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 때문에 깔끔한 선, 동글게 처리한 모서리, 그리고 해양 요소와 연관된 현대적 소재의 사용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매뉴팩처 최초의 셀프 와인딩 점핑 아워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로열 오크 '점보(Royal Oak 'Jumbo')' 모델에 탑재한 칼리버 7121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새로운 칼리버 7122는 순간 점핑 아워(instantaneous jumping hour, 시침이 서서히 움직이지 않고 정적이 되는 순간 숫자가 즉시 다음 숫자로 바뀌는 기능)와 트레일링 미닛(trailing minute, 분침이나 디스크가 다이얼을 따라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표시 방식)을 더해 정밀도, 성능, 신뢰성을 제공한다. 52시간의 견고한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며, 특히 받은 충격 흡수 시스템을 적용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시를 표시하는 숫자가 점프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디스크는 티타늄으로 제작했으며, 창을 통해 점진적으로 표시되는 분 디스크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고, 코드 드 주네브와 새틴 브러시를 비롯한 세련된 마감이 아름다움을 배가한다.

###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38MM

향상된 정밀도, 신뢰성, 시각적 세련미를 위해 개발된 새로운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칼리버 6401. 로열 오크의 진화에서 기술적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이 무브먼트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핑크 골드 소재로 제작한 세 가지 독특한 모델에 처음으로 장착된



5 정교한 시계 제작 기술과 빈티지 미학을 조화롭게 결합한 이 모델은 핑크 골드 및 사파이어 케이스와 새롭게 개발한 모터보트 장식한 스트랩이 특징이다. 6 오데마 피게의 새로운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칼리버 6401을 처음 선보였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은 부드러운 색조에 화려한 세련미를 선사하며 우아함과 기술적 숙련도를 표현한다. 7 상징적인 '블루 누, 뉴아주 50(Bleu Nuit, Nuage 50)' 색조의 그랜드 타피스리(grande tapisserie) 다이얼은 시대를 초월하는 스포티하고 세련된 감각을 선사한다. 8 칼리버 7139는 다이얼과 케이스 백의 중심이 되는 복잡한 오픈워크 기술을 비롯한 전통적 기술을 보존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오픈워크 기술은 1930년대 이래로 오데마 피게의 전문 분야였다. 9 케이스, 크라운, 브레이슬릿 링크는 티타늄으로 제작했으며 매뉴팩처의 시그니처인 새틴 마감을 적용했다. 이는 풍부한 빛의 유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로열 오크의 복잡한 구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오픈워크의 예술과 인간 공학적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무브먼트는 고전적인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제시하며, 우리의 유산을 기리면서도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시계를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줍니다” \_ 일라리아 레스타(Ilaria Resta, 오데마 피게 최고 경영자)



다. 각 시계는 38mm 로열 오크 크로노그래프(Royal Oak Chronograph)에 최초로 적용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칼리버의 정교한 구조와 마감을 볼 수 있어 로열 오크 38mm 라인의 심미적이고 기술적인 도약을 엿볼 수 있다. 5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칼리버 6401은 1997년에 도입해 거의 30년 동안 매뉴팩처의 주력 무브먼트로 자리 잡은 로열 칼리버 2385를 대체한다. 또 오데마 피게는 클러치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를 획득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품 수를 줄이며 불필요한 유격을 제거했다. 그 결과,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반응성이 뛰어난 크로노그래프가 탄생했으며, 더욱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고, 간편한 순간 점프 방식의 날짜 기능과 가독성 향상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한 카운터 배치가 특징이다. 칼리버 6401은 올해 하반기에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에도 장착해 브랜드 제품군 전반에 걸쳐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한층 발전된 세대교체를 이루게 된다.

###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오픈워크

칼리버 7139를 장착한 이 시계는 퍼페추얼 캘린더와 오픈워크의 예술적 기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인체 공학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무브먼트는 브랜드가 지난해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직관적인 올인원 크라운 조정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가독성을 향상시킨 조화로운 캘린더 표시가 특징이다. 오픈워크 처리한 부품은 빛을 투과시켜 무브먼트의 기계식 심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칼리버 7139는 41mm의 두 가지 모델에서 첫선을 보이는데, 하나는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컬렉션 최초의 오픈워크 처리한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로, 유행을 타지 않는 두 가지 색으로 디자인했으며, 다른 하나는 티타늄과 벌크 금속 유리(Bulk Metallic Glass, BMG)를 결합한 로열 오크다. 두 시계는 사파이어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의 정교한 장인 기술과 세련된 건축적 구조를 강조한다. 지난해 단종된 역사적인 칼리버 5135의 뒤를 이어 칼리버 7139는 이천여 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기술적, 미학적 가능성을 열었다. 퍼페추얼 캘린더는 월의 길이 변화와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해 날짜와 주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시계 태엽이 늘 완전히 감겨 있는 상태라는 가정하에, 2100년 동안 그레고리력과 일치하도록 날짜를 자동으로 조정하면 되도록 설계했다. 오데마 피게 기술자들이 케이스 디자인과 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개발한 직관적인 올인원 크라운에는 오픈워크 처리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 새로운 무브먼트는 4-hz(28,800vph)로 진동하며 최소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더욱 향상된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한다.

# Luminous Flow

빛의 흐름에 따라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다이아몬드 베젤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아제 라인라이트 칼라 워치 6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지름 32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가 하이 주얼리 못지않은 광채를 발한다. 8천8백만원. 문의 1877-4275  
IWC 포르토파노 오토매틱 37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을 총 1.12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워 마커와 베젤이 돋보이는 존재감을 더한다. 32111 칼리버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해 약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천7백80만원. 문의 1877-4315  
볼가리 세르펜티 세두토리 워치 백 머리를 연상시키는 케이스를 다이아몬드로 감싸고, 블랙 다이얼, 비늘에서 영감을 받은 육각형 패턴의 유연한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1천5백20만원. 문의 02-6105-2120  
샤넬 워치 블랙 세라믹 지름 38mm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베젤, 인디케이터를 장착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레도를 따라 움직이는 별에서 영감을 받았다. 지름 25mm 케이스는 18K 세드나 골드로 제작했으며,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 베젤과 퍼플 다이얼,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로 구성했다. 오메가 칼리버 4061로 구동한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3467-8632  
블랑팡 레이디버드 칼라즈 문페이즈 34.9mm의 레드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과 스몰 세컨즈, 미드나잇 블루 인덱스를 더하고 엘리베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했다. 총 2.2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얼과 베젤이 우아한 멋을 완성한다. 5천2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에디터 김하얀

오리아트 김지현



# Venice Spirit

장인 정신과 혁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개성을 추구하는 보테가 베네타에서 2026 여름 캠페인을 공개했다. 베네타에서 시작된 보테가 베네타의 뿌리를 조명하는 동시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이스 트로터(Louise Trotter)의 새로운 챕터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새로운 하우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이스 트로터(Louise Trotter)의 진두 지휘 아래 영민하게 새로운 컬렉션을 이끌어가는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가 유수의 럭셔리 브랜드와 작업해온 포토그래퍼 유르겐 텔러(Juergen Teller)와 2026 여름 캠페인을 선보인다. 촬영 지역은 베니스로, 베네토 지역에서 시작된 보테가 베네타의 뿌리를 조명했다. 텔러는 특유의 가공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시선으로 베니스라는 도시가 지닌 우아함과 유산을 새롭게 포착하기 위해 베니스를 대표하는 장소들을 캠페인의 무대로 삼았다. 자르디니 나폴레오니(Giardini Napoleonici), 팔라초 로카 콘타리니 코르푸(Palazzo Rocca Contarini Cortù),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나크(Palazzo Contarini Polignac), 베네데토 마르첼로 국립음악원(Conservatorio di Musica Benedetto Marcello), 리도(Lido), 그리고 아카데미아 다리 인근 팔라초 카발라-프란케티(Palazzo Cavalli-Franchetti) 앞에 자리한 안골로 피오리토(Angolo Florito) 플라워 스푼에 이르기까지, 베니스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는 물론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여기에 베니스에 머물며 예술적 삶을 이어나간 문화적 아이콘, 특히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과 트루먼 커포티(Truman Capote)에 대한 은유적 레퍼런스를 더해 도시가 품은 예술성과 미학을 아우르는 보다 확장된 대화의 장으로 컬렉션을 조명했다. 자르디니의 조각 작품부터 팔라초 벽면에 남은 빛바랜 테피스트리, 정교하게 조각된 문인 방(문 위아래에 설치하는 골짜기), 그리고 베네데토 마르첼로 국립음악원에서 울려 퍼지는 오르간 선율 등 베니스가 지닌 다층적인 예술적 풍경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그뿐 아니라 캠페인에서는 오리지널 인트레치아토의 구조적인 비율부터 아이코닉한 핸드백의 진화 등 보테가 베네타의 장인 정신과 루이스 트로터의 혁신성을 마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선보이는 두

가지 백에는 루이스 트로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보테가 베네타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기존에 선보인 보테가 베네타의 유산에 현대적 터치를 가미한 베네타 백부터 보테가 베네타 하우스의 정수를 본인의 방식으로 해석한 새로운 스타일의 바바라 백까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두 가지 백을 통해 보테가 베네타 하우스의 우아함과 헤리티지를 엿볼 수 있다.

### 컬렉션을 아우르는 두 가지 백

먼저 베네타 백은 보테가 베네타가 2002년 처음 선보였으며, 오랜 시간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상징해온 아이콘을 새롭게 해석한 호보 스타일의 백이다. 기존 모델의 견고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세밀한 수공 디테일과 현대적 감각을 통해 한층 진화한 형태로 재탄생한 것. 특히 폭이 넓어진 12mm 패딩 처리 가죽 스트랩을 인트레치아토 기법으로 외부 구조에 적용하고, 더욱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해 존재감을 더욱 극대화했다. 또 핸들과 보드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유연한 곡선은 우아한 스타일은 물론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한편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하우스의 모던하면서도 절제된 미학을 드러내는 새로운 스타일의 바바라 토트백은 루이스 트로터의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스타일의 백이다. 보테가 베네타 특유의 조형적 실루엣을 통해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인 비즈니스 핸드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부드러운 레더 소재를 사용해 하우스 최초 인트레치아토 스타일인 9×12mm 버전으로 구현한 클래식한 스타일과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스무스 엘리트 카프 버전 등 다양한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브라스 비스라토(brass vibrato) 피니시의 은은한 메탈 컴포넌트로 핸들을 보디에 정교하게 고정해 완성한 미니멀한 튜브형 핸들로 고급스러운 에티튜드를 선사한다. 베네타 백과 바바라 토트백은 여러 사이즈와 컬러로 다채로운 스타일 및

“

베네타 백부터 바바라 백까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두 가지 백을 통해 보테가 베네타 하우스의 우아함과 헤리티지를 엿볼 수 있다”

옵션을 제안한다. 타임리스한 매력에 모던한 감각을 더한 베네타 백은 스물과 미디엄은 물론 존재감 있는 맥시와 오는 2월 쇼에서 거꾸로 연출해 선보인 베이비까지, 폭넓은 라인업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바바라 토트백은 미디엄·라지·맥시 사이즈로 구성된다. 미디엄과 라지 사이즈는 안정감 있는 핸드 캐리로 우아한 균형감을 선사하며, 맥시 사이즈는 슬더 캐리가 가능해 보다 자유로운 무드를 완성한다. 이를 통해 각 사이즈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유연하게 어우러지는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문의 02-3438-7694 에디터 성정민



1 2026 여름 컬렉션 의상을 착용한 모델. 아름다운 베니스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2 71번 룩의 피아버 글라스를 적용한 톱과 레드 컬러의 베이비 베네타 백. 3 인트레치아토 디테일로 완성한 호보 스타일의 베네타 백 미디엄 베이비. 4 화이트 컬러의 베이비 베네타 백. 5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선사하는 바바라 백 라지 블랙.

(아래 왼쪽부터 차례대로) 위블로 빅뱅 MECA-10 티타늄 내구성이 뛰어난 42mm 티타늄 케이스와 베젤, 그리고 무브먼트의 구조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키텔론 다이얼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10일간의 파워 리저브, 100m 방수를 지원하는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HUB1205로 작동한다. 3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오데마 피게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셉트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지름 41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독특한 파동 무늬의 그레이 다이얼,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의 카운터를 얹고 다이얼과 같은 컬러로 맞춘 페브리 텍스처의 그레이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5천8백만원대. 문의 02-543-2999 **블랑팡 피프티 퍼덤즈 오토매틱** 18K 레드 골드 케이스, 블랙 베젤과 러버 스트랩의 대비가 돋보이며,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췄다. 4천7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디올 타임피스 쉬프르 루즈 타임피스** 38mm의 스틸 케이스와 까나쥬 패턴 그레이 다이얼의 조합에 레드 초침으로 포인트를 주고, 9시와 12시 사이의 노치(notch) 디테일 스틸 베젤과 매크로 까나쥬 그레이 러버 스트랩으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가로 줄무늬의 티프 패턴을 담은 다이얼에 6시 방향 날짜창과 세드나 골드 링을 갖춘 유백색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을 장착했다. 정교한 스타칭 디테일의 스트러처드 블루 러버 스트랩이 특징이다. 1천6백만원대. 문의 02-3467-8632 **파넬라이 루미노르 마리나 PAM01356** 지름 44mm의 브러시드 eSteel™ 케이스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그린 다이얼이 시각적 존재감을 더하고, 그린 페브리 텍스타일 스트랩이 스포티한 매력을 살린다.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P.9010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118-6256 **에디터 김하얀**



# Modern Times

가벼운 착용감과 뛰어난 활동성을 겸비한 러버와 패브리 스트랩은 남성 위치로서 예상 밖의 트렌디한 맛을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아티스트 김재현

# A Dynamic Dreamer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뜨거운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위치계의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도 같은 위블로. 혁신과 창의성을 뻗속 깊이 새긴 브랜드답게 올 한 해 힘찬 시작을 알린다.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로 BTS 정국을 발탁한 것. 그의 음악적 감성과 아티스트적 역량, 전 세계적 영향력에 힘입어 또 한번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위블로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CEO 줄리앙 토나레(Julien Tornare)를 만났다.

## interview

**줄리앙 토나레** (Julien Tornare, 위블로 CEO)

무려 26년간 하이엔드 위치메이킹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온 줄리앙 토나레. 그는 2024년 9월부터 위블로 CEO로 임명되었다. 올해 중요한 미션을 앞둔 위블로의 수장으로서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힘찬 포부로 가득했다. 위치메이킹계의 혁신을 가장 주요한 키워드로 꼽는 브랜드 DNA 자체인 그에게서 올해의 기운인 붉은 말의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었다.

**SC(Style Chosun)** 자급 차고 계산 위치를 기억합니다. 작년 빅뱅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빅뱅 올 블랙 아닌가요? 올해도 LVMH 위치 워크에서 신제품을 선보였죠. 계속해서 빅뱅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05년 처음 발표한 빅뱅은 위블로 위치메이킹 디자인의 본질이자 영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오기도 했고, 저희의 DNA이자 헤리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뉴 빅뱅을 선보일 것입니다.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도 빅뱅의 또 다른 진화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SC** 이번 LVMH 위치 워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위치는 '스피릿 오브 빅뱅' 말의 해 에디션입니다. 말 모티브에 당나라에서 영감을 기법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타임피스인가요? 물론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말'은 서양 문화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중국의 전통 기법을 활용해 그 의미에 경의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말의 입체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디자인 기법을 찾던 중 마침 중국 당나라 시대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의미와 디자인, 상징성 등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문화와 축제를 위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SC** LVMH 위치 워크에서 많은 신제품이 소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계는 무엇인가요? 노박 조코비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100% 인 하우스로 제작한 투르비용으로 위블로의 하이엔드 위치메이킹 기술력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위블로이기에 가능한 신소재를 적용해 놀라운 성과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위블로의 가치인 창의성, 혁신, 새로운 소재, 그리고 하이 위치메이킹을 모두 담은 타임피스라 할 수 있습니다.

**SC** 매년 다수의 인상적인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혁신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위블로만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혁신은 위블로의 DNA입니다. 1980년 창립자 카를로 크로코(Carlo Crocco)가 골드와 러버를 결합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스위스 위치메이킹업계는 때로는 보수적이고 조용하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위블로는 정반대입니다. 저희는 늘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SC** 이번에 BTS 정국을 위블로의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로 맞이하게 된 소감과 그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블로는 창의성, 혁신, 신소재, 위치메이킹 측면에서도 놀라운 브랜드지만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눈을 돌렸습니다. K-팝이 그 해답이었죠. K-팝은 현재 많은 이들의 감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BTS 정국은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한국,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C**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보면 말 에디션에는 중국 문화 요소를 가미하고, 앰배서더로는 한국 아티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일본까지 포함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3개의 맛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셋 모두 깊은 유산과 역사를 지닌 나라들이고, 그것을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 미래, 혁신 면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역시 미래로 향하는 브랜드이자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SC** 위블로가 세운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혹은 이뤄내고자 하는 성과가 있을까요? 올해 저희는 마케팅적 접근법을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혁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위치메이킹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은 인정과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위블로의 시계를 구매한다는 것은 혁신과 창의성을 사는 것임은 물론,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춘 놀라운 타임피스를 소유한다는 것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발표와 이벤트 또한 그 일환입니다. 위블로 시계를 구매하는, 혹은 앞으로 구매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문의 02-540-1356 **에디터 성장민**

## ANNOUNCES NEW FACE

지난 2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럭셔리 스위스 위치메이킹 브랜드 위블로가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퍼포머이며 21세기 팝 아이콘인 BTS 정국을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로 공식 발표했다. 스위스 위치메이킹 기술과 음악, 그중에서도 K-팝이라는 두 세계가 만나 독창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이었다. 1980년 골드와 러버를 결합한 첫 위치부터 2005년 혁신적인 빅뱅의 등장, 그리고 최근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까지, 위블로는 혁신을 브랜드의 정체성 그 자체로 만들어왔다. 정국 또한 장르와 창의성, 감정과 본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로 위블로의 정신을 공유한다. 정국은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2년 FIFA 월드컵 공식 타임키퍼였던 위블로와 'Dreamer'를 공유했을 때 시간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위블로와 함께하게 된 지금, 그 순간이 다시 돌아온 듯한 기분입니다. 저는 위블로의 자신감, 장인 정신,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방식을 존경해왔습니다." 브랜드와 음악, 아티스트의 적절한 만남. 이것이 바로 위블로가 이야기하는 'The Art of Fusion'이다.

1 위블로 CEO 줄리앙 토나레. 그가 착용한 위치는 작년 워치스 & 원더스에서 출시한 '빅뱅 20주년 기념 올 블랙'이다.  
2 올해 1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LVMH 위치 워크에서 선보인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 킹 골드 세라믹'.  
3 2월 12일 위블로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된 BTS 정국.

사진: 장석현



# Back in Classic

오랜 시간 변주를 거듭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켜오거나, 리뉴얼을 거쳐 귀환하거나. 브랜드마다 클래식 백을 풀어내는 방식은 다양하다. PHOTOGRAPHED BY JEONG SEOK 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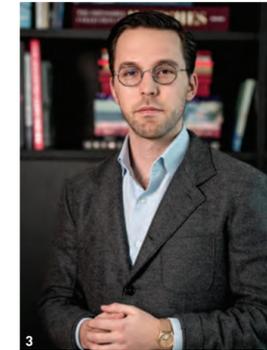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2010년 피비 파일리가 처음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더 부드럽고 가벼운 가죽을 사용하고, 과감한 오버사이즈 형태로 재해석된 미디엄 뉴 러기지 백. 36×16×22cm, 5백9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그레이 숏이자가죽 보디에 과감한 블루 스웨이드 인감을 매치했다. 아이코닉한 트위스트 잠금 장식이 돋보이는 펜디 웨이 라지 백. 43×32×17cm, 6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숏에서 영감받았으며, 오리지널 버전보다 가볍고, 싱글 지퍼를 갖춰 편안함과 실용성을 높인 패딩된 스몰 백. 26×12×12cm, 3백38만원 콜로에. 문의 02-6905-3670. 2002년을 풍미한 아이코닉 백이 돌아왔다. 중전 디자인을 충실히 유지하면서도, 어깨에 걸쳤을 때 안정감 있는 유연한 실루엣의 핸들을 장착한 몸바사 스몰 백. 20×15.5×2.5cm,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벨로. 문의 02-545-2250. 브랜드 창립 180주년을 기념해 모던한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다. 1975년,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을 위해 탄생한 백으로, 이번 시즌에는 백을 의도적으로 오픈하는 스타일링에 중점을 두고 백 전체를 따라 이어지는 정교한 바인딩 디테일, 시그니처 스커어 디자인이 특징인 아마조나 180. 18×11×7.5cm,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에디터 김하얀

아이사톤 김지형



# An Eternal Brilliance

하이엔드 워치와 주얼리 메이커로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쇼파드가 특별한 전시 <다이아몬드의 시간(L'Heure du Diamant)>을 선보였다. 기념비적인 행사를 위해 내한한 쇼파드 패밀리, 칼 프리츠 슈펠레(Karl Fritz Scheufele)는 이번 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제네바를 떠나 16점의 역사적인 뮤지엄 피스를 선보이는 기회입니다. 쇼파드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예술성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의 말처럼 1백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온 브랜드의 유구한 역사와 정교한 장인 정신을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이었다.



interview  
칼 프리츠 슈펠레  
(Karl Fritz Scheufele)

쇼파드의 오너 가문 슈펠레 패밀리의 일원, 칼 프리츠 슈펠레는 현재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며, 알파인 이글 컬렉션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다. 아카이브 유산과 동시대적 디자인을 연결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그는 인터뷰 내내 밝은 미소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차세대 경영진으로서의 유연하고 진취적인 포부, 그리고 쇼파드의 단단한 미래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 ACROSS HERITAGE

쇼파드가 빈안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약 6일간 전시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제네바에서만 감상할 수 있던 역사적인 16피스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기회였다. 역시 브랜드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카이브 전시이자, 2년에 걸쳐 전 세계에 소개될 프로젝트성 기획 전시이기도 했다. 전시 공간은 총 4개의 테마 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공간은 히스토리 존으로 이 전시의 목적인 16점의 다이아몬드 컬렉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메종의 금세공 예술과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소개하는 사브아 페어 존, 쇼파드 주얼리 위치의 핵심을 보여주는 12피스의 현대 다이아몬드 위치를 전시한 프레셔스 아워 존, 그리고 몰입형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칼레이도 룸이 마련되었다. 가족 경영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워치와 주얼리 메이커로서 입지를 다져온 쇼파드의 근간과 비전을 다각도로 느낄 수 있었다.

1 과거에 출시되어 역사적 의미를 지닌 16점의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시간> 전시. 2 1972년에 탄생한 다이아몬드 컬렉션으로 타이거즈 아이 다이얼에 조형미가 돋보이는 옐로 골드 컵 브레이슬릿을 더했다. 3 쇼파드 가문의 일원인 칼 프리츠 슈펠레. 4 현재 선보이는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다채로운 원색의 다이얼 컬러와 다이아몬드 베젤이 이루는 우아한 조화가 특징이다. 5 다이아몬드 컬렉션의 핵심을 보여주는 12피스를 전시한 프레셔스 아워 존. 6 하이 주얼리 컬렉션뿐 아니라 메종의 금세공 기술과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소개하는 사브아 페어 존.

SC(Style Chosun) 제네바에서 브랜드의 역사와도 같은 16점을 반출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 물론 제네바 밖으로 이동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정된 뮤지엄 공간에 머무르기보다,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직접 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브랜드의 시작과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컬렉션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SC 이번 전시와 함께 공개된 16점의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감상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작목마다 서로 다른 시대적 미감과 기술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디테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진귀한 소재, 다이얼에 세팅한 스톤과 정교한 마감 기술, 무엇보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제작 방식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문화적, 디자인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각 작품이 당대의 미감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SC 혁신적 기술과 독창적 디자인, 장인 정신 등 쇼파드를 이루는 요소 중 오늘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혁신과 디자인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은 장인 정신에 더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강화될수록 사람의 손으로 완성하는 기술의 의미는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섬세한 감각과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쇼파드는 주얼리와 위치메이킹의 연결 및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밀한 브레이슬릿 제작, 스톤 세팅 같은 기술은 오랜 훈련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감각과 인내, 그리고 올바른 철학이 함께해야 비로소 가능한 영역이다. SC 쇼파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과거는 '헤리티지', 현재는 '칭조', 미래는 '전달'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기술과 가치가 과거를 만들었다면, 지금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을 이어가고, 이 모든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와 호흡하고, 사람의 손에서 탄생하는 가치를 이어가는 것. 쇼파드가 추구하는 진정한 럭셔리 의미다. 문의 02-2118-6085 에디터 김하얀



# 2026 S/S Trend Report

과장 대신 균형, 유행 대신 활용도에 주목했다. 옷장에 바로 들어도 좋을 '지금 입기 좋은' 트렌드를 소개한다. 봄·여름 컬렉션을 통해 꼽아본 패션 하이라이트 8.



### Let It Flower

봄에 더욱 반가운 플라워 패턴이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컬러와 크기, 디테일로 런웨이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민트 오간자 드레스에 플라워 자수를 정성스럽게 더해 목가적인 무드를 완성한 에르메, 실과 케이블, 레디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꽃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맥퀸이 대표적이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꽃밭에 가까웠던 펜디. 실크와 오간자 같은 가벼운 소재에 차가운 메탈릭 장식의 아슬리케 플라워를 배치해 대비를 이루거나, 서로 다른 패턴과 과감하게 조우시키는 등 플라워 패턴이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을 극대화했다.



### Carry Your Luck

이번 시즌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아이템이 있으니, 이름하여 파우치 백. 드로스트링을 조여 연출하는 북주머니를 연상시키는 앙증맞은 실루엣이 포인트다. 손목에 걸거나 가볍게 쥐어도 좋다. 북주머니를 담은 백과 함께 행운 가득한 한 해를 보내길!



Celine



### Shorter, Better

남자도 이제 쇼트 팬츠 시대다. 여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쇼트 팬츠가 남성 컬렉션에서 대거 발견됐다. 성별의 경계보다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한 트렌드다. 포켓 디테일의 마이크로 팬츠를 선보인 프라다, 포말한 셔츠에 롤업 쇼트 팬츠를 매치한 생 로랑이 그 예다. 마지막으로 최고난도로 꼽히는 톰 포드는 모던한 블랙 니트에 언더웨어가 은은히 비치는 센수얼한 북서 팬츠를 입힌 모델을 런웨이에 당당히 내세웠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게 마련이다. 무릎 위로 족히 20cm 이상 올라오는 쇼트 팬츠를 소화하려면 과감함은 물론, 패션을 향한 수용적 태도가 필수다.



### All About Scarves

일교차가 큰 요즘, 스카프의 활용도가 주목받고 있다. 머리에 뒤집어쓰는 스타일링을 필두로, 재킷 안에 자연스럽게 둘러 베이식하게 연출한 셀린느, 홀터 톱처럼 활용한 에르메스, 마이크로 미니 사이즈의 스카프를 귀고리에 걸친 펜디 등이 있다. 특히 페라가모는 남자 모델에게 수트를 입고, 벨트 대신 프린지 디테일의 실크 스카프를 허리에 여러 번 감아 단숨에 드레시하게 변신시켰다. 과감하게 시도할수록 록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에디터 김하얀



### Mega Obsession

크면 클수록 좋은 '대대'의선 의 불문율이 선글라스에도 통했다. 올여름 단 하나의 선글라스를 고른다면, 단연 메가 사이즈 선글라스다. 작열하는 태양 한 줄기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대담한 실루엣이 시선을 압도한다. 중요한 건 컬러와 디자인보다 '크기'다. 사이즈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스테이트먼트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무테 디자인으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과감히 가려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자아낸 맥퀸, 렌즈부터 프레임까지 오렌지 컬러로 통일해 복고적 감성을 선보인 에트르까지,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다.



### Soft Steps

무슨 말이 필요할까. 편하고 예쁘다. 주요 컬렉션 곳곳에 등장하며, 드레스와 빈번히 차림 모두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니 한동안 스니커즈의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아이디어 김지영



### Go Sli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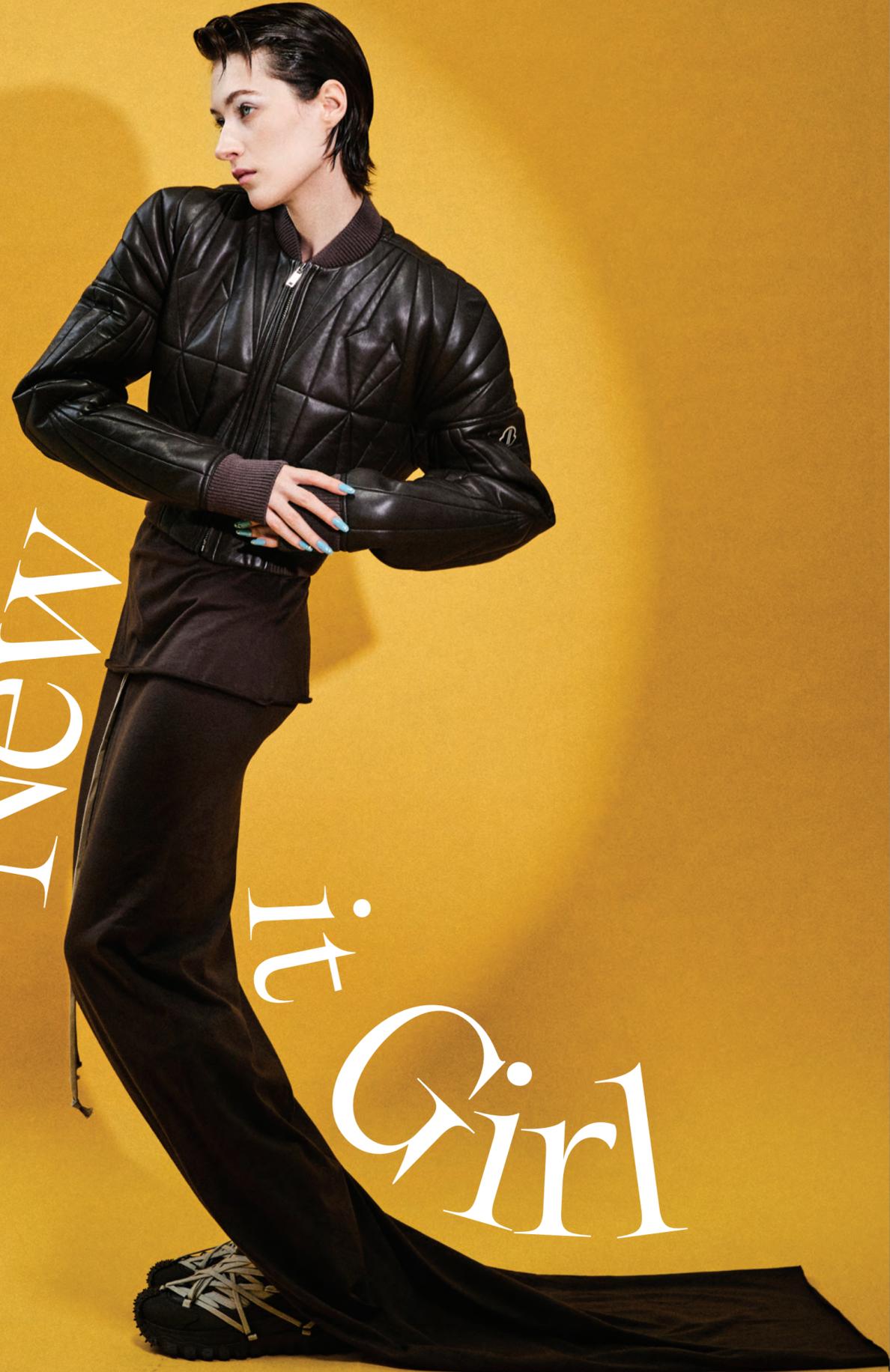
플립플롭, 일명 '포리'가 급부상했다. 한여름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데일리 슈즈지만, 사방이 트인 가벼운 디자인 탓에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좀처럼 선택받지 못했던 불명예가 아이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 수트와 셔츠, 니트 같은 말쑥한 차림에 플립플롭을 더하면 캐주얼과 포멀을 넘나드는 반전 룩을 시도할 수 있을 것.



### OPEN IT UP!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 기라사대, "무엇이 됐든, 열어라!" 내로라하는 디자이너들은 바르고 정직한 록보다 열리고, 틀어지고, 뒤엎힌 모습에 집중했다. 벨트의 버클을 열어둔 루이 비통, 가방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도록 지퍼를 반 이상 내린 아미조나 180 백의 루에베, 셔츠를 풀어헤쳐 의도적으로 속옷을 내보인 에트르까지. 노출 때문일까, 어쩔지 클해 보이기까지 한다.

# New it Girl



나파 레더 보머 재킷 7백40만원,  
롱 슬리브 코튼 티셔츠 70만원,  
저지 소재 스커트 98만원,  
트레일그립 메가레이스 스니커즈  
1백35만원 모두 몽클레르 + 락 오옌스.



리본 디테일의 버진 울 소재 톱,  
실크 소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쿠에르 로얄 이어링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울, 실크와 리넨 소재 기아 재킷,  
아이디 셔츠, 헥터 팬츠, 플리츠 디테일의  
페트라 스커트, 카프 스킨 소재 로퍼,  
퓨어 캐시미어 원사를 사용한 펠트 소재  
아네트 햇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트위드 소재 쇼트 재킷, 플리츠  
미니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라로브 네크리스 8백80만원,  
이어링 1천79만원,  
(오른손부터 차례대로)  
패시하모니 링 2백74만원,  
에이트리아 링(full) 2백5만원,  
플로팅 링 3백91만원,  
에이트리아 링(half) 1백67만원,  
엘로라 링 3백94만원 모두 페로즈

울 니트 롱, 서스펜더 스커트, 포플린 셔츠, 레더 글러브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코튼 트위드 소재 재킷, 드레스, 램 스킨 소재 펌프스, 메탈 & 스트라스 소재 스타드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하이넥 플리티드 드레이프 드레스,  
헤이븐 룩, 레드 플로럴 삭스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램 스킨 베스트, 테크니컬  
실크 크레이프 소재 체크 셔츠,  
소츠, 실크 니트 소재 이너 소츠,  
레더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Arina K(Exclusive Seoul)  
스타일리스트 제한석



샤넬 080-805-9628  
루이 비통 02-3432-1854  
로로피아나 02-6200-7799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몽클레르 0030-8321-0794  
프라다 02-3442-1831  
에르메스 02-542-6622  
디올 02-3280-0104  
페로즈 02-542-1254

# Get



## BOUCHERON

(왼쪽부터 차례대로) 지혜, 용기, 사랑을 의미하는 뱀을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우아하게 구현한 세팅 보행 투 헤드 링, 메종의 역사적인 장소 방돔 광장에서 영감받았으며, 화이트 골드에 1백61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와 1개의 록 크리스탈을 세팅한 리비에르 방돔 네크리스, 독특한 텍스처가 특징인 파드로 그로그랭 화이트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부쉐론. 문의 080-822-0250

# The



## VACHERON CONSTANTIN

지름 36.5mm의 딥 블루 다이얼에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닛 트랙과 6시 방향의 날짜장, 나뭇잎 모양의 아워 & 미닛 핸즈를 더하고 다크 블루 엘라게이터 레더로 마무리했다. 별도의 도구 없이 푸시 버튼 가법계 누르면 스트랩 교체 가능한 패트리모니 셀프 와인딩 4천8백20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 List



## HERMÈS

굵직한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실크 소재 헤어 액세서리, 매듭과 레터링, 다양한 부츠 프린트를 수놓은 실크 소재 스카프, 90×90cm,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봄을 연상시키는 패턴과 구조적 디자인, 그리고 정제된 실루엣. 요란하지 않게 새 계절을 만끽하는 방법.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 CHANEL WATCHES

파리 방돔 광장에서 영감받은 팔각형 케이스가 특징이다. 지름 19.7mm 스틸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베젤, 벨벳으로 감싼 블랙 라버 스트랩이 조화로운 프리미에르 리본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 LOUIS VUITTON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노그램 패턴과 가로로 긴 반달 세이프가 만나 동시대적 미감을 발휘한다. 긴 핸들을 장착해 토트백은 물론 슬더로도 활용 가능한 스콰이어 이스트 웨스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 FENDI

아플리케 장식으로 플라워 패턴을 한층 입체적으로 표현한 오간자 소재 퍼프 슬리브 드레스 1천1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 GRAFF

화이트 골드, 라운드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찬란한 빛 반사를 극적으로 표현한 트리아넵 컬렉션 다이아몬드 링 1천8백68만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에디터 김하얀



## PRADA

가늘고 긴 리본 디테일과 뾰족한 앞코의 실루엣이 남다른 페이턴트 레더 소재 슬림백 펌프스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에디터 김하얀

# Secret Scents

서로를 감싸 안은듯, 포근하고 따뜻한 향.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 라보 & 라 마티에르** 마스크 **우트르블랑** 화이트 마스크와 네롤리가 달콤한 오렌지 플라워와 불가리아 로즈, 그리고 목직향 샌들우드와 화이트 앰버를 만나 청순과 관능미를 오가는 독특한 향을 선사한다. 200ml 76만원. 문의 080-343-9500 **지방시 뷰티 랩** 레르디 퍼퓸 버터 아몬드 에센스와 화이트 플로럴 향이 베티베르와 파슬리, 빈조인 등 다크 우디 어코드와 아우러져 뜻밖의 포근한 향을 느낄 수 있다. 50ml 21만2천원. 문의 080-801-9500 **에디션 드 퍼퓸 프레데릭 말** **무스 라바제** 베르가모트, 시나몬, 앰버, 바닐라, 머스크 등을 블렌딩해 강렬하고 뜨거운 욕망을 표현한 향취가 인상적이다. 100ml 48만원. 문의 02-3479-6258 **에르메스 바레니아 오 드 퍼퓸 인텐스** 버터플라이 릴리에 감각적인 가죽 향을 더해 강인한 듯 섬세한 여성의 면모를 표현했다. 100ml 28만8천원. 문의 02-3479-1368 **마티에 프리미에르 레디컬 로즈 오 드 퍼퓸** 유기농으로 재배한 샌티폴리아 로즈 앰슬루트의 배합을 높여 장미에서 느낄 수 없는 목직향 향을 섬세하게 담고, 칠리 페퍼 베리와 시프론 등을 추가해 개성을 더했다. 100ml 가격 미정. 문의 02-2185-9581 **트루통 45° 바닐라** 3종 노트를 중심으로 라오스산 빈조인과 꿀 향이 부드럽게 퍼져 점점 높아지는 온도가 연상되는 따뜻한 향이 특징이다. 100ml 43만원. 문의 02-6905-3324 **크리스찬 디올 뷰티 브이 탈라스망 오 드 퍼퓸** 시더우드가 바닐라와 만나 바닐라 특유의 부드러운 매력을 강조하고, 미자락으로 합성 요산의 바닐린을 선택해 베이커리의 달콤한 내용이 점진적으로 흩어진다. 100ml 45만원. 문의 080-342-9500 **에디터 김하얀**

# Softly After

밀도감 있는 텍스처와 은은한 잔향, 오브제 같은 패키지가 어우러져 일상에 힐링을 더한다. 피부 관리를 넘어 하루의 리듬을 정제하는 감각적인 리추얼이 되어줄 럭스 보디 케어.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 **아베이 로얄 스킵프 & 헤어 케어** 브러쉬 두피와 모발 케어에 효과적인 브러시로, 내구성이 뛰어난 방수 레진 소재를 사용했다. 건조하거나 젖은 모발에 헤어 케어 제품을 고르게 퍼 바를 때 활용하기 좋다. 25만원. 문의 080-343-9500 **샤넬 가브리엘 샤넬 바디 오일** 간편한 스프레이 타입으로, 투베로즈와 재스민이 어우러진 플로럴 향과 실키한 텍스처가 빠르게 흡수돼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150ml 16만6천원. 문의 080-805-9638 **클라리스 프레셔스 라 무스 두스 네트와이징** 크림이한 텍스처가 물에 닿는 순간 섬세한 거품으로 변해 노폐물을 세정한다. 세안 후에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해준다. 125ml 11만원. 문의 080-542-9052 **오피신 유니버설 폴리 알라바스트 포셀린 케이스 & 스톤** 스톤 위에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불이나 증기 없이도 깊은 향을 전한다. 포셀린 케이스로 차 안이나 드레스 룸 등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각 4만4천원(케이스), 3만6천원(스톤). 문의 031-688-5551 **보이레 싸봉 부호 르 비샤쥬 로즈** 워터와 로즈힙 오일을 담아 깊은 보습을 전하고, 오라스 뿌리 추출물이 모공을 케어해 피부를 진정시킨다. 100g 16만5천원. 문의 02-310-5025 **시슬리 징코 과사** 곡선 면과 손잡이를 활용해 얼굴 근육을 이완하고, 광대와 턱선의 윤곽을 살려준다. 미세 주름 케어에도 효과적이다. 20만원. 문의 080-549-0216 **에르메스 윤 자르맹 아 시테르 헤어 & 바디 드라이 오일** 올리브나무와 피스타치오, 목초의 잔향이 어우러지며 피부와 머릿결에 촉촉함과 윤기를 더한다. 50ml 8만4천원. 문의 02-310-5174 **라 메르 핸드 트리트리먼트** 해초 성분을 담아 건조한 손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을 더하고, 큐티클까지 섬세하게 케어해준다. 50ml 8만3천원. 문의 02-6971-3215 **크리스찬 디올 뷰티 자도르 로르 자디올 솔리드 퍼퓸**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들며, 단독 또는 향수 위에 덧발라 은은한 플로럴 노트를 더할 수 있다. 골드 메탈 시그니처 케이스로 휴대하기 좋다. 3.2g 17만5천원. 문의 080-342-9500 **에디터 신정임**

크리스찬 디올 뷰티 디올 어딧드 립 글로우 008 울트라 핑크 바르는 순간 입술 온도에 녹아 본연의 립 컬러보다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3.2g 5만원대.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김하얀

# Editor's Pick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감각을 깨우는 향과 생기를 더해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아이템. 편집부 에디터들이 엄선한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PERFECT TONE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세럼 프라이머 #퍼플**  
 칙칙해진 피부를 화사하게 밝혀주고 모공을 정돈해줘 자연스럽게 피부 컨디션을 개선한다. 은은한 광채는 덤. 30ml 9만2천원대.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신정임

**조 말론 런던 잉글리쉬 페어 앤 스위트 피 핸드크림** 손을 자주 씻는 이라면 추천. 끈적임 하나 없이 촉촉함만 남기는 것은 물론, 고급스러운 향까지 더해준다. 30ml 3만4천원. 문의 1644-3753\_by 에디터 성정민

**스위스 퍼펙션 리버커리 립 오일 세럼** 비타민 C 유도체와 베타카로틴, 고추 추출물을 담아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한 핑크색이 차오르고, 탄력 있는 입술로 케어해준다. 4.5ml 13만2천원대.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신정임

**로에베 센티드 캔들 큐컴버 테라코타** 그릇과 세라믹으로 완성한 세련된 오브제 디자인부터 활격. 정신을 맑게 깨우는 신선하고 상쾌한 오이 향이 키친에 안성맞춤일 듯하다. 610g 37만7천원. 문의 02-3479-1484\_by 에디터 성정민

HYDRA BOOST

**러플 대나무 히알루론산 수분 세럼** 대나무 추출물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날씨로 메말랐던 피부 속을 촉촉하게 채워준다. 특히 베이스 바르기 전 사용하면 평소보다 매끄러운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 30ml 2만1천원대. 문의 070-4759-3393\_by 에디터 신정임

**다이슨 아미노 리브-인 스킨케어 버블 트리트먼트** 행귀널 필요 없는 거품 제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두피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잔여감이 없이 빠르게 흡수된다. 75ml 7만9천원. 문의 1588-4253\_by 에디터 성정민

**리버티 메이즈 EDP 플로럴 시트러스 베르가모트와 엘그레이터**, 재스민, 은자작나무 등 상쾌하고 평온한 시트러스 향이 과수원을 따라 걷다 푸르른 정원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다. 50ml 32만원. 문의 080-363-5454\_by 에디터 김하얀

NEW POWDER

**시세이도 리바이탈에센스 루스 세팅 파우더 핑크 하이드레이팅 글로우** 보습한 내장 퍼프로 모공과 요철이 고민인 부위를 부드럽게 터치하면, 즉각적으로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화사한 톤으로 밝혀준다. 7g 6만3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김하얀

\* 상단(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10대, 120대, 130대, 140대, 150대, 160대, 170대, 180대, 190대, 200대, 210대, 220대, 230대, 240대, 250대, 260대, 270대, 280대, 290대, 300대, 310대, 320대, 330대, 340대, 350대, 360대, 370대, 380대, 390대, 400대, 410대, 420대, 430대, 440대, 450대, 460대, 470대, 480대, 490대, 500대, 510대, 520대, 530대, 540대, 550대, 560대, 570대, 580대, 590대, 600대, 610대, 620대, 630대, 640대, 650대, 660대, 670대, 680대, 690대, 700대, 710대, 720대, 730대, 740대, 750대, 760대, 770대, 780대, 790대, 800대, 810대, 820대, 830대, 840대, 850대, 860대, 870대, 880대, 890대, 900대, 910대, 920대, 930대, 940대, 950대, 960대, 970대, 980대, 990대, 1000대, 1010대, 1020대, 1030대, 1040대, 1050대, 1060대, 1070대, 1080대, 1090대, 1100대, 1110대, 1120대, 1130대, 1140대, 1150대, 1160대, 1170대, 1180대, 1190대, 1200대, 1210대, 1220대, 1230대, 1240대, 1250대, 1260대, 1270대, 1280대, 1290대, 1300대, 1310대, 1320대, 1330대, 1340대, 1350대, 1360대, 1370대, 1380대, 1390대, 1400대, 1410대, 1420대, 1430대, 1440대, 1450대, 1460대, 1470대, 1480대, 1490대, 1500대, 1510대, 1520대, 1530대, 1540대, 1550대, 1560대, 1570대, 1580대, 1590대, 1600대, 1610대, 1620대, 1630대, 1640대, 1650대, 1660대, 1670대, 1680대, 1690대, 1700대, 1710대, 1720대, 1730대, 1740대, 1750대, 1760대, 1770대, 1780대, 1790대, 1800대, 1810대, 1820대, 1830대, 1840대, 1850대, 1860대, 1870대, 1880대, 1890대, 1900대, 1910대, 1920대, 1930대, 1940대, 1950대, 1960대, 1970대, 1980대, 1990대, 2000대, 2010대, 2020대, 2030대, 2040대, 2050대, 2060대, 2070대, 2080대, 2090대, 2100대, 2110대, 2120대, 2130대, 2140대, 2150대, 2160대, 2170대, 2180대, 2190대, 2200대, 2210대, 2220대, 2230대, 2240대, 2250대, 2260대, 2270대, 2280대, 2290대, 2300대, 2310대, 2320대, 2330대, 2340대, 2350대, 2360대, 2370대, 2380대, 2390대, 2400대, 2410대, 2420대, 2430대, 2440대, 2450대, 2460대, 2470대, 2480대, 2490대, 2500대, 2510대, 2520대, 2530대, 2540대, 2550대, 2560대, 2570대, 2580대, 2590대, 2600대, 2610대, 2620대, 2630대, 2640대, 2650대, 2660대, 2670대, 2680대, 2690대, 2700대, 2710대, 2720대, 2730대, 2740대, 2750대, 2760대, 2770대, 2780대, 2790대, 2800대, 2810대, 2820대, 2830대, 2840대, 2850대, 2860대, 2870대, 2880대, 2890대, 2900대, 2910대, 2920대, 2930대, 2940대, 2950대, 2960대, 2970대, 2980대, 2990대, 3000대, 3010대, 3020대, 3030대, 3040대, 3050대, 3060대, 3070대, 3080대, 3090대, 3100대, 3110대, 3120대, 3130대, 3140대, 3150대, 3160대, 3170대, 3180대, 3190대, 3200대, 3210대, 3220대, 3230대, 3240대, 3250대, 3260대, 3270대, 3280대, 3290대, 3300대, 3310대, 3320대, 3330대, 3340대, 3350대, 3360대, 3370대, 3380대, 3390대, 3400대, 3410대, 3420대, 3430대, 3440대, 3450대, 3460대, 3470대, 3480대, 3490대, 3500대, 3510대, 3520대, 3530대, 3540대, 3550대, 3560대, 3570대, 3580대, 3590대, 3600대, 3610대, 3620대, 3630대, 3640대, 3650대, 3660대, 3670대, 3680대, 3690대, 3700대, 3710대, 3720대, 3730대, 3740대, 3750대, 3760대, 3770대, 3780대, 3790대, 3800대, 3810대, 3820대, 3830대, 3840대, 3850대, 3860대, 3870대, 3880대, 3890대, 3900대, 3910대, 3920대, 3930대, 3940대, 3950대, 3960대, 3970대, 3980대, 3990대, 4000대, 4010대, 4020대, 4030대, 4040대, 4050대, 4060대, 4070대, 4080대, 4090대, 4100대, 4110대, 4120대, 4130대, 4140대, 4150대, 4160대, 4170대, 4180대, 4190대, 4200대, 4210대, 4220대, 4230대, 4240대, 4250대, 4260대, 4270대, 4280대, 4290대, 4300대, 4310대, 4320대, 4330대, 4340대, 4350대, 4360대, 4370대, 4380대, 4390대, 4400대, 4410대, 4420대, 4430대, 4440대, 4450대, 4460대, 4470대, 4480대, 4490대, 4500대, 4510대, 4520대, 4530대, 4540대, 4550대, 4560대, 4570대, 4580대, 4590대, 4600대, 4610대, 4620대, 4630대, 4640대, 4650대, 4660대, 4670대, 4680대, 4690대, 4700대, 4710대, 4720대, 4730대, 4740대, 4750대, 4760대, 4770대, 4780대, 4790대, 4800대, 4810대, 4820대, 4830대, 4840대, 4850대, 4860대, 4870대, 4880대, 4890대, 4900대, 4910대, 4920대, 4930대, 4940대, 4950대, 4960대, 4970대, 4980대, 4990대, 5000대, 5010대, 5020대, 5030대, 5040대, 5050대, 5060대, 5070대, 5080대, 5090대, 5100대, 5110대, 5120대, 5130대, 5140대, 5150대, 5160대, 5170대, 5180대, 5190대, 5200대, 5210대, 5220대, 5230대, 5240대, 5250대, 5260대, 5270대, 5280대, 5290대, 5300대, 5310대, 5320대, 5330대, 5340대, 5350대, 5360대, 5370대, 5380대, 5390대, 5400대, 5410대, 5420대, 5430대, 5440대, 5450대, 5460대, 5470대, 5480대, 5490대, 5500대, 5510대, 5520대, 5530대, 5540대, 5550대, 5560대, 5570대, 5580대, 5590대, 5600대, 5610대, 5620대, 5630대, 5640대, 5650대, 5660대, 5670대, 5680대, 5690대, 5700대, 5710대, 5720대, 5730대, 5740대, 5750대, 5760대, 5770대, 5780대, 5790대, 5800대, 5810대, 5820대, 5830대, 5840대, 5850대, 5860대, 5870대, 5880대, 5890대, 5900대, 5910대, 5920대, 5930대, 5940대, 5950대, 5960대, 5970대, 5980대, 5990대, 6000대, 6010대, 6020대, 6030대, 6040대, 6050대, 6060대, 6070대, 6080대, 6090대, 6100대, 6110대, 6120대, 6130대, 6140대, 6150대, 6160대, 6170대, 6180대, 6190대, 6200대, 6210대, 6220대, 6230대, 6240대, 6250대, 6260대, 6270대, 6280대, 6290대, 6300대, 6310대, 6320대, 6330대, 6340대, 6350대, 6360대, 6370대, 6380대, 6390대, 6400대, 6410대, 6420대, 6430대, 6440대, 6450대, 6460대, 6470대, 6480대, 6490대, 6500대, 6510대, 6520대, 6530대, 6540대, 6550대, 6560대, 6570대, 6580대, 6590대, 6600대, 6610대, 6620대, 6630대, 6640대, 6650대, 6660대, 6670대, 6680대, 6690대, 6700대, 6710대, 6720대, 6730대, 6740대, 6750대, 6760대, 6770대, 6780대, 6790대, 6800대, 6810대, 6820대, 6830대, 6840대, 6850대, 6860대, 6870대, 6880대, 6890대, 6900대, 6910대, 6920대, 6930대, 6940대, 6950대, 6960대, 6970대, 6980대, 6990대, 7000대, 7010대, 7020대, 7030대, 7040대, 7050대, 7060대, 7070대, 7080대, 7090대, 7100대, 7110대, 7120대, 7130대, 7140대, 7150대, 7160대, 7170대, 7180대, 7190대, 7200대, 7210대, 7220대, 7230대, 7240대, 7250대, 7260대, 7270대, 7280대, 7290대, 7300대, 7310대, 7320대, 7330대, 7340대, 7350대, 7360대, 7370대, 7380대, 7390대, 7400대, 7410대, 7420대, 7430대, 7440대, 7450대, 7460대, 7470대, 7480대, 7490대, 7500대, 7510대, 7520대, 7530대, 7540대, 7550대, 7560대, 7570대, 7580대, 7590대, 7600대, 7610대, 7620대, 7630대, 7640대, 7650대, 7660대, 7670대, 7680대, 7690대, 7700대, 7710대, 7720대, 7730대, 7740대, 7750대, 7760대, 7770대, 7780대, 7790대, 7800대, 7810대, 7820대, 7830대, 7840대, 7850대, 7860대, 7870대, 7880대, 7890대, 7900대, 7910대, 7920대, 7930대, 7940대, 7950대, 7960대, 7970대, 7980대, 7990대, 8000대, 8010대, 8020대, 8030대, 8040대, 8050대, 8060대, 8070대, 8080대, 8090대, 8100대, 8110대, 8120대, 8130대, 8140대, 8150대, 8160대, 8170대, 8180대, 8190대, 8200대, 8210대, 8220대, 8230대, 8240대, 8250대, 8260대, 8270대, 8280대, 8290대, 8300대, 8310대, 8320대, 8330대, 8340대, 8350대, 8360대, 8370대, 8380대, 8390대, 8400대, 8410대, 8420대, 8430대, 8440대, 8450대, 8460대, 8470대, 8480대, 8490대, 8500대, 8510대, 8520대, 8530대, 8540대, 8550대, 8560대, 8570대, 8580대, 8590대, 8600대, 8610대, 8620대, 8630대, 8640대, 8650대, 8660대, 8670대, 8680대, 8690대, 8700대, 8710대, 8720대, 8730대, 8740대, 8750대, 8760대, 8770대, 8780대, 8790대, 8800대, 8810대, 8820대, 8830대, 8840대, 8850대, 8860대, 8870대, 8880대, 8890대, 8900대, 8910대, 8920대, 8930대, 8940대, 8950대, 8960대, 8970대, 8980대, 8990대, 9000대, 9010대, 9020대, 9030대, 9040대, 9050대, 9060대, 9070대, 9080대, 9090대, 9100대, 9110대, 9120대, 9130대, 9140대, 9150대, 9160대, 9170대, 9180대, 9190대, 9200대, 9210대, 9220대, 9230대, 9240대, 9250대, 9260대, 9270대, 9280대, 9290대, 9300대, 9310대, 9320대, 9330대, 9340대, 9350대, 9360대, 9370대, 9380대, 9390대, 9400대, 9410대, 9420대, 9430대, 9440대, 9450대, 9460대, 9470대, 9480대, 9490대, 9500대, 9510대, 9520대, 9530대, 9540대, 9550대, 9560대, 9570대, 9580대, 9590대, 9600대, 9610대, 9620대, 9630대, 9640대, 9650대, 9660대, 9670대, 9680대, 9690대, 9700대, 9710대, 9720대, 9730대, 9740대, 9750대, 9760대, 9770대, 9780대, 9790대, 9800대, 9810대, 9820대, 9830대, 9840대, 9850대, 9860대, 9870대, 9880대, 9890대, 9900대, 9910대, 9920대, 9930대, 9940대, 9950대, 9960대, 9970대, 9980대, 9990대, 10000대, 10001대, 10002대, 10003대, 10004대, 10005대, 10006대, 10007대, 10008대, 10009대, 10010대, 10011대, 10012대, 10013대, 10014대, 10015대, 10016대, 10017대, 10018대, 10019대, 10020대, 10021대, 10022대, 10023대, 10024대, 10025대, 10026대, 10027대, 10028대, 10029대, 10030대, 10031대, 10032대, 10033대, 10034대, 10035대, 10036대, 10037대, 10038대, 10039대, 10040대, 10041대, 10042대, 10043대, 10044대, 10045대, 10046대, 10047대, 10048대, 10049대, 10050대, 10051대, 10052대, 10053대, 10054대, 10055대, 10056대, 10057대, 10058대, 10059대, 10060대, 10061대, 10062대, 10063대, 10064대, 10065대, 10066대, 10067대, 10068대, 10069대, 10070대, 10071대, 10072대, 10073대, 10074대, 10075대, 10076대, 10077대, 10078대, 10079대, 10080대, 10081대, 10082대, 10083대, 10084대, 10085대, 10086대, 10087대, 10088대, 10089대, 10090대, 10091대, 10092대, 10093대, 10094대, 10095대, 10096대, 10097대, 10098대, 10099대, 10100대, 10101대, 10102대, 10103대, 10104대, 10105대, 10106대, 10107대, 10108대, 10109대, 10110대, 10111대, 10112대, 10113대, 10114대, 10115대, 10116대, 10117대, 10118대, 10119대, 10120대, 10121대, 10122대, 10123대, 10124대, 10125대, 10126대, 10127대, 10128대, 10129대, 10130대, 10131대, 10132대, 10133대, 10134대, 10135대, 10136대, 10137대, 10138대, 10139대, 10140대, 10141대, 10142대, 10143대, 10144대, 10145대, 10146대, 10147대, 10148대, 10149대, 10150대, 10151대, 10152대, 10153대, 10154대, 10155대, 10156대, 10157대, 10158대, 10159대, 10160대, 10161대, 10162대, 10163대, 10164대, 10165대, 10166대, 10167대, 10168대, 10169대, 10170대, 10171대, 10172대, 10173대, 10174대, 10175대, 10176대, 10177대, 10178대, 10179대, 10180대, 10181대, 10182대, 10183대, 10184대, 10185대, 10186대, 10187대, 10188대, 10189대, 10190대, 10191대, 10192대, 10193대, 10194대, 10195대, 10196대, 10197대, 10198대, 10199대, 10200대, 10201대, 10202대, 10203대, 10204대, 10205대, 10206대, 10207대, 10208대, 10209대, 10210대, 10211대, 10212대, 10213대, 10214대, 10215대, 10216대, 10217대, 10218대, 10219대, 10220대, 10221대, 10222대, 10223대, 10224대, 10225대, 10226대, 10227대, 10228대, 10229대, 10230대, 10231대, 10232대, 10233대, 10234대, 10235대, 10236대, 10237대, 10238대, 10239대, 10240대, 10241대, 10242대, 10243대, 10244대, 10245대, 10246대, 10247대, 10248대, 10249대, 10250대, 10251대, 10252대, 10253대, 10254대, 10255대, 10256대, 10257대, 10258대, 10259대, 10260대, 10261대, 10262대, 10263대, 10264대, 10265대, 10266대, 10267대, 10268대, 10269대, 10270대, 10271대, 10272대, 10273대, 10274대, 10275대, 10276대, 10277대, 10278대, 10279대, 10280대, 10281대, 10282대, 10283대, 10284대, 10285대, 10286대, 10287대, 10288대, 10289대, 10290대, 10291대, 10292대, 10293대, 10294대, 10295대, 10296대, 10297대, 10298대, 10299대, 10300대, 10301대, 10302대, 10303대, 10304대, 10305대, 10306대, 10307대, 10308대, 10309대, 10310대, 10311대, 10312대, 10313대, 10314대, 10315대, 10316대, 10317대, 10318대, 10319대, 10320대, 10321대, 10322대, 10323대, 10324대, 10325대, 10326대, 10327대, 10328대, 10329대, 10330대, 10331대, 10332대, 10333대, 10334대, 10335대, 10336대, 10337대, 10338대, 10339대, 10340대, 10341대, 10342대, 10343대, 10344대, 10345대, 10346대, 10347대, 10348대, 10349대, 10350대, 10351대, 10352대, 10353대, 10354대, 10355대, 10356대, 10357대, 10358대, 10359대, 10360대, 10361대, 10362대, 10363대, 10364대, 10365대, 10366대, 10367대, 10368대, 10369대, 10370대, 10371대, 10372대, 10373대, 10374대, 10375대, 10376대, 10377대, 10378대, 10379대, 10380대, 10381대, 10382대, 10383대, 10384대, 10385대, 10386대, 10387대, 10388대, 10389대, 10390대, 10391대, 10392대, 10393대, 10394대, 10395대, 10396대, 10397대, 10398대, 10399대, 10400대, 10401대, 10402대, 10403대, 10404대, 10405대, 10406대, 10407대, 10408대, 10409대, 10410대, 10411대, 10412대, 10413대, 10414대, 10415대, 10416대, 10417대, 10418대, 10419대, 10420대, 10421대, 10422대, 10423대, 10424대, 10425대, 10426대, 10427대, 10428대, 10429대, 10430대, 10431대, 10432대, 10433대, 10434대, 10435대, 10436대, 10437대, 10438대, 10439대, 10440대, 10441대, 10442대, 10443대, 10444대, 10445대, 10446대, 10447대, 10448대, 10449대, 10450대, 10451대, 10452대, 10453대, 10454대, 10455대, 10456대, 10457대, 10458대, 10459대, 10460대, 10461대, 10462대, 10463대, 10464대, 10465대, 10466대, 10467대, 10468대, 10469대, 10470대, 10471대, 10472대, 10473대, 10474대, 10475대, 10476대, 10477대, 10478대, 10479대, 10480대, 10481대, 10482대, 10483대, 10484대, 10485대, 10486대, 10487대, 10488대, 10489대, 10490대, 10491대, 10492대, 10493대, 10494대, 10495대,



REACH FOR THE CROWN



서브마리너



ROLEX